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앙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워싱턴 ‘대한제국 공사관’ ... 연방 문화재 지정 임박

워싱턴 DC에 소재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미국의 국립사적지(NRHP) 반열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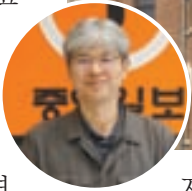
7일 연방 국립공원관리청(NPS)은 관보를 통해,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국립사적지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청은 현재 지정 여부를 심사 중이며,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임산(사진)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국외소재문화재단 미국사무소장은 “워싱턴DC 정부가 공사관 건물이 갖고 있는 근대사적 의미와 더불어 특히 초창기 한미외교사를 조명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해 국가사적지 등재를 제안해왔다”

면서 “미국 정부가 외국정부 외교공관을 국가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립사적지는 한국의 국가유산(옛 문화재)과 비슷한 제도다. 연방 정부가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장소 등을 지정한다. 현재까지 한국과 관련해 국립사적지로 지정된 곳은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유일하다. 국립사적지로 지정되면 연방 및 주정부가 보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

공사관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서양 국가에 설치한 외교공관이다. 백악관에서 1마일 거리에 위치했으며, 1877년 빅토리아 양식으로 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9세기 워싱턴DC에 있었던 외교공관 중 원형을 간직한 유일한 건물이다. 1889년 2월부터 일제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잃은 1905년까지 운영됐다.

1910년 9월 일본이 단돈 5달러에 강제 매입한 뒤 미국인에게 10달러

에 매각돼 가정집으로 사용된 뒤 한 동안 잊혀졌다. 이후 박보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당시 저서 『살아 숨쉬는 미국역사』(2005년)를 통해 공사관의 존재를 알렸다. 워싱턴을 비롯 전국의 한인들은 공사관 매입을 위해 모금운동을 펼쳤고, 이후 한국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이 2012년 350만 달러에 이 건물을 사들여 원형대로 복원한 뒤 2018년 개관했다.

공사관을 국립사적지로 지정해달라고 추천한 기관은 워싱턴DC 시정부다. 앞서 워싱턴DC 역사보존사무국은 지난달 25일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공사관을 국립사적지로 추천할 것을 시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시정

부는 공사관이 미국 역사에 중대한 기여를 한 사건들과 관련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지정을 추천했다.

시정부는 지정 추천서에서 공사관이 한국이 미국에 설치한 첫 상시 외교 공관으로 한국의 근대국가 설립 노력과 관련돼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 원형이 잘 보존됐다면서 국가유산청이 2015년부터 3년간 진행한 대규모 복원 공사를 통해 공사관 운영 당시의 역사적 모습과 분위기를 되살렸다고 평가했다.

공사관은 한국 정부가 소유하고 한국의 역사가 주체인 장소로, 이런 곳이 미국 국립사적지로 지정된 경우는 아직 없다고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김임산 소장은 설명했다. 박형수·김윤미 기자

한인 자영업, 영세·소형 → 중형기업 위주 재편

향간 50

‘전국 한인 경제실태 조사’ 분석
② 직업·소득·주거의 변화

자영업 비율 20% 깨져, 89%가 직원 10인 이하
연봉 10만불도 생활고...주택소유 55.4%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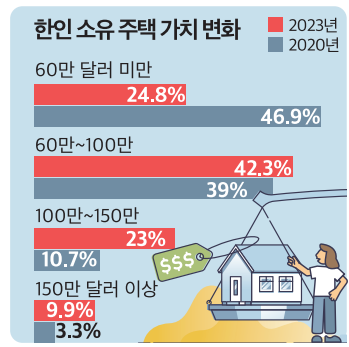
자영업 중에서 영세 업체 비율이 줄고 매출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의 재편이 확인됐다. 주택소유율은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유 주택의 가치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다. 소득 면에서 보면 한인 경제는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 저소득층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났다. 본지가 실시한 ‘2023 전국 한인 경제 실태 조사’의 결과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한인 5016명이 참여했다.

▶자영업
한인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서비스업(21.9%), 도소매업(19.3%), 요식업(15.9%)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서비스업(23.9%), 도소매업(18.6%), 요식업(15.1%)이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을 차지했다.
고용 직원의 수에 대해서 10명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89.5%로 이는 2020년 조사에서의 90.5%와 차이가 거의 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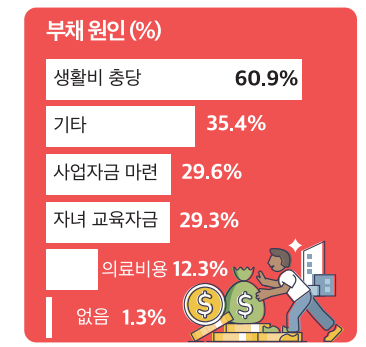
않았다. 고용 규모 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한인 기업은 소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전체적인 매출의 규모 질문에서 100만 달러 이하의 매출을 올린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20년의 85.5%에서 2023년 72.1%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영세 업체가 팬데믹 동안 버티지 못하고 대거 폐업했거나 은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매출 높은 기업 위주로 살아남으면서 한인 자영업계도 재편되고 있다. 자바시장은 영세 업체는 팬데믹 이후 종적을 감췄고 큰 기업만 살아남았다. 은행 관계자들은 “영세업체들은 팬데믹과

2023년 중반기부터 본격화된 불황의 여파로 많이 정리된 상태”라며 “영세 및 소형 업주들이 힘든 여건에 폐업, 비즈니스를 타인종에 매각, 조기 은퇴를 한 자영업자도 꽤 된다”고 말했다.

▶주거형태
한인들의 주택 소유율은 55.4%, 렌트 비율은 44.6%였다. 2020년에는 소유 비율(48.4%)과 렌트 비율(47.0%)이 처음으로 역전됐는데 그 격차가 3년 뒤에 더 벌어진 것이다. 1.4%였던 차이가 7배가 넘는 10.8%가 됐다. 연방준비제도와 센서스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국내 주택 소유주 비율은 64.2%



〈그래프1〉



〈그래프2〉

에서 67.9%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낮은 금리와 재택근무 트렌드 등으로 인한 주택 구매 열풍이 한인사회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인 소유 주택의 집값 상승은 소유 주택 가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프 1〉 2020년에는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9%가 소유한 주택의 가치가 60만 달러 미만이라고 답했으나, 2023년에는 이 비율

이 절반 가까운 24.8%로 줄어들었다. 반면,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크게 늘었다. 100만 달러 이상 150만 달러 미만의 주택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023년 23.0%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150만 달러 이상의 주택 비율은 2020년 3.3%에서 2023년 9.9%로 세 배가 됐다.

조원희 기자

▶ 12면 ‘중형기업’ 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면지매입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Capital Healthcare Institute
치료마사지 자격증 코스
버지니아한의대 (VUIM.edu) 부속학교
높은 수입 잠재력 전문직! / 자격증 프로그램 수료증 소지!
자영업 / 전문기관에서 풀타임 / 파트타임근무.
● 최첨단 기술: 개발도입 힐링 치료마사지 기계 50% 이상 치료 마사지 도움 향상
● 최첨단 기계: 손마사지로 할 수 없는 마사. 뜸, 부항, 온열 (전침) 역할.
● 수업 600 시간 필수
● 월요일 부터 목요일 저녁 온라인 수업
● 토요일/일요일 선택 임상실습
● 매달 15일 새학생 등록 가능
학비: 한정기간동안 특별 할인가 \$5,000 (정가 \$8,000) 할부결제 가능
치료마사지/체혈사 자격증 코스
문의: 571-243-4251

Capital Healthcare Institute
체혈사 자격증 코스
전문 의료자격증 취득
80시간 과정
안정적 수입 & 취업
국가인증 시험 합격률 100%
수업: 온라인 + 실습
학비: \$2,000
치료마사지/체혈사 자격증 코스
문의: 571-243-4251
학교주소: 1980 Gallows Rd, Vienna, VA 22182

“90년 인생 되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감사와 겸손”

한국내 인맥만 따지면 다섯 손가락 안. 하지만 여기에 미국 인맥까지 넣으면 단연 으뜸으로 불리는 김장환 목사(90). 6·25 전쟁 중에 미군의 허드렛일을 해주는 ‘하우스보이’로 시작해 열여섯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적인 목회자로 우뚝 선 그의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된 건 1997년 3월이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YS)의 아들 현철 씨가 기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수뢰한 혐의로 정국은 요동을 쳤다. 모 취재원으로부터 “김장환·조용기 목사가 오늘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고 주변을 탐문한 결과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접했다.

두 목회자가 YS에게 한 이야기는 충격이었다. 먼저 김장환 목사. “반역을 꾀한 아들 압살됨이 정부군의 장에 찢려죽자 부친 다윗왕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하고요. 하지만 다윗왕은 곧 심기일전해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YS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본지 특종으로 이 두 목회자의 고언이 전해졌다. 그리고 YS는 얼마 후 현철씨 구속 수사를 허가했다. 정국도 진정됐다. 그런 식으로 김 목사는 고비마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충고자 역할을 해 왔다. 그래서 일각에선 ‘정치 목사’라 비난한다. 하지만 김 목사를 아는 이들은 “사회에 어두운 소외계층에서부터 대통령까지 그의 진도 대상에 제한은 없다”고 일축한다.

구순을 맞아 지난달 말 출간된 김 목사 평전을 읽고 보수 개신교를 대표하는 원로로서 과연 윤석열 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 진영 갈등의 해소책은 뭔지, 나아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뭔지 확인하고 싶었다. 100분 인터뷰 내내 김 목사의 열정에 압도당했다.

—그때 YS에게 한 고언이 보도된 뒤 별 문제는 없었나요.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이 바로 전화가 와 ‘기도하고 식사나 하고 나오시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지난달 말 김장환 목사의 구순을 맞아 출간된 평전 ‘빌리 김, 하우스보이에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만난 김장환 목사는 “어렵겠지만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갈 수 있을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만나거나 전화로 함께 기도... 텔레그램도 보내와 23일 DC 케네디 센터서 어린이 합창단 대형 공연도 주최

고 하더군요. 이후 구속된 현철씨에게 기도해주려 구치소에 12번이나 면회를 갔어요.”

—윤 대통령과는 어떻게 만났나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극동방송 사옥)에서 봤죠. 로마서 12장을 읽어드렸습니다.”(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사실 전 별로 (윤 대통령에) 좋은 인상을 갖지 않았어요.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애먹였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겸손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첫마디가 ‘저 (기독교 사학인) 대광초등학교 6년 다녔습니다. 교회를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습니다’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럼 기초는 돼 있네요”라고 했어요. 요즘 대통령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좀 잘하는 건 잘한다 하고,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해야 해요.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곤란해요.”

—요즘에도 자주 연락하시나요.

“대통령이 예컨대 ‘목사님 오후 5시에 들어와 기도 좀 해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 보통 다른 목사 두세 명에게 연락해 함께 (용산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죠. 어떨 때는 제가 (호두)파이를 갖고 들어가요. 대통령이 바빠서 시간이 안 될 때는 전화를 걸어와 ‘지금 기도해주세요’라고 하는 적도 있어요. 지난해 미국 국민 방문하기 전날에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내일 떠나는데 (전화로) 기도해 달라’고요. 그때 같은 점심 자리에 16명인가 있었는데, 모인 사람 모두 기도하며 ‘아멘, 아멘’ 하나씩 대통령도 그 소리가 수화기로 들렸는지 함께 ‘아멘’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게 몇 번 있었죠. 최

지도자도 정치인 전에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고생하죠.”

—이달 중순 워싱턴DC 케네디 센터에서 어린이 합창단 650명의 공연을 주최한다고 들었습니다.

“6·25 참전 미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2016년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행사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어린이 합창단 500명의 무대를 열었거든요. 감동한 많은 이들이 ‘외교관 100명도 하지 못할 일을 어린이들이 했다’고 찬사를 보냈어요. 이번 케네디센터 공연(23일)도 2500석 전체가 이미 매진됐는데, 절반 이상은 현지 미국인들이 산 것이라고 하더군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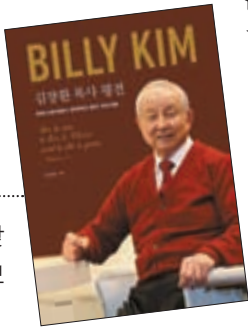
—2017년 문재인-트럼프 첫 정상회담 때도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트럼프가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났을 때 얼굴도 안 보고 ‘노룩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김진표 의원(전 국회의장)이 걱정됐는지 제게 연락을 해 왔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들(프랭클린 그레이엄)이 트럼프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던데 방안을 주선해달라’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만남이 성사됐는데, 그때 문 전 대통령 첫마디가 ‘난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메시지가 트럼프에게 전달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트럼프 2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난 2018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 장례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선 김정은을 안 좋아한다. 당신이 좀 기함을 넣어라!’라고요. 트럼프는 ‘오케이’라 답 하더군요. 아무튼 트럼프가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에게 돈이 쏠리고 있잖아요. 미국 선거는 돈입니다. 예측 불가 선거가 된 거죠. 하지만 트럼프 재선에 대비해 인맥을 빨리 구성해야 합니다. 지난 4월에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왔고, 또 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정치자금 지원은) 외국인이 할 수 없게 돼 있어 까딱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김현기 논설위원



워싱턴 날씨 (°F)

10일(토)	89-67	13일(화)	85-68
11일(일)	87-66	14일(수)	87-69
12일(월)	85-67	15일(목)	86-69

8월 9일(금) 83~71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유,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점 \$660,000
자세히 보실 것! 리모? SOLD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9/9~9/13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VA 페어팩스 카운티 사무실 공실률 22.9%

공실률 증가세 이어져

워싱턴 지역의 사무실 빌딩 공실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FCEDA)가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분기 카운티 사무실 공실률은 22.9%에 달했다.

공실률 랠리는 펜데믹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펜데믹이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2021년 공실률은 전년 대비 1.4% 포인트, 2022년에는 전년 대비 0.7% 포인트, 그리고 올해도 전년 대비 0.5% 포인트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FCEDA는 북버지니아 지역은 샌프란시스코(34.5%) 등 서부지역에 비해 공실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자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대기업 분사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달레스 공항 28번 도로 주변 지역의 공실률을 50%가 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FCEDA는 펜데믹 이전부터 이미 사무실 공실률 문제가 주요 경제 현안이었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20개 테크 대기업들의 사무실 임대 면적은 펜데믹 이전인 2010-2019년 사이 1600만 스퀘어피트였으나 펜데믹 이후 800만 스퀘어피트로 급격하게 줄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덴 스토크 수퍼바이저(마운트 버넌 디스트릭)는 "페어팩스 카운티 사무실 임대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스토크 수퍼바이저는 "페어팩스

카운티가 사무실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확장 동력을 지닌 신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등은 IT나 생명과학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 인큐베이터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해 사무실 렌트를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사무실 공실률 감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페어팩스 카운티는 달레스 공항과 수도 워싱턴과 인접했다는 지정학적 잇점을 강조하며 각종 인센티브 정책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공실률이 매우 높은 낡은 사무실 건물 등을 리모델링해 주거용 건물로 전환하거나 경공업 단지 조립으로 변경해 고용을 늘리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김욱재 기자

한인 자영업자 비율 감소의 의미

한인 경제권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자영업 종사자 비율은 줄고 은퇴 인구는 늘고 있는 것이다. 세대교체에 따른 현상으로 생각되지만 한인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주중앙일보가 한인 최대 은행인뱅크오브호프와 함께 실시한 '전국 한인 경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자영업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4년 전인 2020년 조사 때의 24.4%에 비해 4.8%포인트나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06년 이후 실시된 5차례 조사에서 자영업 비율이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반면, 은퇴 인구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번 조사 응답자 가운데 '은퇴했다'는 비율은 17.6%로 2020년의 11.9%에 비해 5.7%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들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보면 은퇴하는 자영업자는 느는데 창

업 활동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 비율의 감소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한인 경제에도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좋게 보면 구조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민 1세대는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영업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성장한 1.5세, 2세대들은 안정된 취업이 가능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창업 정체 현상은 한인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민 사회라는 특성상 한인 경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움직인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창업이 이뤄져야 경제권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 경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가 왔다.

이유정 기자

제3국 출생 탈북자녀도 탈북민 인정...대입특례·학비 지원

통일부 '새 탈북민 지원법' 의결 북한 주민 1명, 강화 교동도로 귀순 군·간조 때 한강 하구 걸어서 건너

통일부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김수경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추진 방안을 담은 올해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입국 탈북 청소년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투명인간'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일부는 우선 북한이탈주민법 제2

조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에 '제3국 출생 자녀'를 추가, 이들도 탈북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3국 출생 자녀가 북한 출생 자녀와 동등한 절차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교육·보육 지원 대상에도 이들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도 대학 특례 입학과 학비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8세가 넘어 한국에 입국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중국 등 출생지에서 이수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아야 했다.

한편 이날 북한 남성 1명이 인연 강화군 교동도를 통해 넘어온 뒤 귀순 의사를 밝혀 관계 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 남성은 썰물 때에 맞춰 한강 하

구를 통해 걸어 내려왔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은 이날 오전 교동도 중립수역을 건너온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주민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워싱턴 지역 출신 메달리스트는?

육상 라일스, 수영 레데키 등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국가대표 중 워싱턴 지역 출신이 3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의 값진 메달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수영 영웅 케이트 레데키(27세, MD 베데스다)는 이번 올림픽에서 여자 수영 1500미터에

서 금메달, 400미터 자유형에서 동메달, 자유형 200미터 릴레이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가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차지한 금메달만 해도 현재까지 16개에 이른다.

토리 허스키(21세, VA 알링턴)는 여자 접영 100미터와 혼계영 400미터에서 금메달, 자유형 100미터에서 은메달, 400미터 자유형 릴레이에서 은메달

을 차지했다. 허스키는 알링턴 카운티의 요크타운 고교를 졸업했다. 에린 점멜(19세, MD 포토맥)은 레데키와 함께 자유형 200미터 릴레이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다.

육상에서는 노아 라일스(27세, VA 알렉산드리아)가 남자 달리기 100미터에서 0.005초 차이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라일스는 8일 자신의 주종목인 200미터와 9일(금) 400미터 계주에서 다시한번 금메달에 도전한다.

테라 라폰드(30세, MD 실버스프링)

은 실버스프링의 JFK 고교와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했으나 모국인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로 출전해 여자 삼단뛰기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크리스틴 타바쉬(25세, VA 알렉산드리아)는 남자 조정 단체전 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미국이 남자조정 종목에서 올림픽 메달을 탄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타바쉬는 공자가 칼리지 고교 재학 당시 농구부와 조정을 병행하다가 12학년부턴 조정 경기에만 집중했다. 김욱재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 - 오미와 함께

- 사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크리스천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Level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 unit	\$ 195	\$ 150	\$ 90	\$ 45
2 units	\$ 365	\$ 290	\$ 180	\$ 90
3 units	\$ 485	\$ 430	\$ 270	\$ 135
의료비 지원범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예방검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입원, 수술	입원, 수술
본인 부담금	\$500/년	\$500/건	\$1,000/건	\$5,000/건

* 모든 Level에서 질병당 \$150,000까지 지원합니다.

의료비 나눔 사업

Since 1996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CA와 NJ 지역의 CMM 회원은 **법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773-777-8889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CMM기독교의료상조회는 로고스선교회 산하 기관으로 501(c)(3) 비영리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이며,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유사 단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LA 한인 선수 20년만의 메달 쾌거

아티스틱 스위밍 미국대표팀
오드리 권 등 8명 은메달 획득
2004년 이후 종목 첫 메달인거
한국 태권도는 8년만에 금메달



미국 국가대표팀의 한인 오드리 권 선수가 7일 파리 올림픽 아티스틱 스위밍 단체전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회전동작을 하고 있다. [로이터]

LA의 한인 선수가 포함된 아티스틱 스위밍 미국 국가대표팀이 20년 만에 첫 올림픽 메달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같은날 한국 태권도도 8년만에 금메달을 안았다.

7일 파리 올림픽 아티스틱 스위밍 단체전에서 미국은 최종 점수 914.34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996.14점으로 금메달을 따냈고, 900.73점을 받은 스페인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가주 지역 언론들은 이날 국가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하는 데 있어 오드리 권과 북가주 출신 카나 헌터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오드리 권(18)은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팀 8명 중 최연소 선수다. 본지는 종합 1면과(본지 7월4일자 A-1면)과

올림픽 특집섹션을 통해 오드리 권의 올림픽 출전 소식을 다뤘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2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왔다. 시애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뒤 현재 LA에서 거주 중이다.

권 선수는 8세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 4년만인 12세에 처음 국제무대에 섰다. 2018년 미국 아티스틱 스위밍 유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아메리카대륙수영연합회(UANA) 팬아메리칸 챔피언십에서 단체전 1위, 개인전 2위의 성적을



거뒀다. 미국 대표팀은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경기에서 미국 대표팀은 마이클 잭슨의 '스무스 크리미널(Smooth Criminal)'에 맞춘 퍼포먼스로 테크니컬 루틴 경기에서 첫날 4위를 기록했다. 이후 프리 루틴과 아크로바틱 루틴 경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점수 2위에 올랐다.

아티스틱 스위밍은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는 명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84년 LA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미국은 2008년 이후 올림픽 아티스틱 스위밍 부문에서 예선을 통과하지 못해 출전하지 못했다. 2004년 동메달을 마지막으로 단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적이 없다. 이번 은메달 획득으로 미국 국가대표팀은 올림픽 무대의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한편, 이날 한국은 태권도로 8년 만에 금메달을 땀다.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결승에서 박태준 선수가 상대 가심 마고메도프(아제르바이잔·26위)의 부상으로 기권승을 거뒀다.

마고메도프는 박태준과 결승전에서 1라운드 1분 7초를 남겨두고 발차기를 시도했다가 서로 다리가 엉키면서 쓰러졌다. 마고메도프는 왼쪽 정강이 부분을 만지며 고통을 호소했다.

enje 경기를 포기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었지만, 마고메도프는 다시 일어나 싸우는 투지를 보였다. 박태준은 2라운드 1분 2초를 남기고 마고메도프의 몸통 발차기에 적응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아 기권을 받아냈다.

박태준 선수는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이 체급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또한 중주국 한국 태권도의 자존심도 세웠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노골드' 굴욕을 당했던 한국 태권도는 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장수아 기자

LA올림픽에 밀려난 '거북선'... 한인들 반발

(2028년)

LA시, 컨벤션센터 이전안 채택
빈자리 올림픽 홍보물 전시예정
사전 통보 없이 옮긴 후에 공지
"기증도시와 외교·우정 훼손"

복선철거원상복구추진위원회(위원장 스캇 서)는 7일 거북선 모형 이전 결정을 내린 캐린 베스 LA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서 위원장은 모형 이전을 두고 "한인 커뮤니티를 무시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며 "모형을 기증한 자매 도시 부산과의 외교 및 우정 관계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측은 LA시 측에 거북선 모형을 기존 자리에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했다.

LA시는 지난 1967년 부산광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1982년 거북선 모형을 선물 받아 시청 건물 내 전시해왔다. 그런데 지난달 2일 LA시의회가 2028년 LA 올림픽 홍보 물품을 전시하기 위해 자매 도시 전시물들을 컨벤션 센터로 옮기는 동의를 채택하고 50

만 달러의 비용을 승인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1984년 LA 올림픽 때도 홍보를 위해 거북선 모형을 이전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LA시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올림픽 홍보 공간 마련을 위해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십년 동안 전시된 자매 도시 기증품의 복원 작업과 넓은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LA시장실 공보 보좌관은 "기증품들을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컨벤션 센터라는 더 넓은 공간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거북선 모형을 비롯한 기증품을 보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LA시 측은 재전시 일정이 확정되면 커뮤니티와 연계해 축하 행사가 열릴 것



7일 거북선 모형이 전시됐던 자리에 모형은 이미 철거됐고 그 자리에는 일본 기증품이 분해되어 보관돼있다. 왼쪽 사진은 철거를 알리는 한글 안내문.

김상진 기자

지난달 2일 LA시가 시청 내 전시해온 거북선 모형을 컨벤션 센터로 이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부 한인들이 해당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해당 모형은 자매 도시인 부산광역시가 지난 1982년 선물해 42년간 시청 안에 전시됐다. LA시는 거북선 모형과 함께 일본, 멕시코 자매 도시 전시물을 모두 컨벤션 센터 공간으로 이전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본지 7월 29일 A-3면)

LA시 조치에 반발하며 조직된 '거

라고 설명했다.

한편, LA시가 거북선 모형 이전과 관련해 LA 총영사관과 부산광역시에 양해를 구한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LA시 측은 지난달 2일 시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된 이후 내용을 총영사관에 안내했으며 부산과도 관련 계획에 대해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기증품 이전 동의안이 LA시의회를 통과한 지 4주가 지난 7월 말에야 이전 양해 연

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측은 "지난 주말 LA시장실로부터 거북선 이전에 대한 양해를 전화 연락으로 받았으며 이후 부산시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 유통환주무관도 "7월 마지막주에 이전 사실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전시물을 옮긴 후에 해당 내용을 영사관에 알렸다면 자매 도시에 대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김경준 기자

애난데일에서 새롭게 오픈합니다



당신을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Patient First®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긴급 및 일반 진료/검사/치료 제공
주말 및 공휴일 포함 365일 오픈(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 예약없이 방문가능
- 각종 질병 및 부상 긴급 진료및 치료
- 주치의가 없는 환자에게 기본진료 제공
- 각종 주요 보험 환영- 보험 청구 접수대행
- 각종 혈액, 소변, 엑스레이검사등을 병원내에서 신속하게 실시, 처방약 병원내에서 구매 가능
- 응급실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
- 원격 진료

Annandale

7042A Little River Turnpike
(순환도로에서 동쪽으로 1.5 마일)
(703) 343-7125

"네셔널 얼전케어 센터" 인증 기관

이스라엘 총영사 한인 부인 인터뷰

교육·가족, 양국 통하는 공통가치

북가주 출신·남편따라 LA로
한인사회의 평화 기도 감사
코서 방식 고추장 즐겨 먹어



이스라엘 바샤르 총영사의 부인 레이첼 바샤르가 본지를 방문해 인터뷰를 했다. 김상진 기자

“평화를 위한 한인사회의 걱정과 기도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많은 교류가 있으면 좋겠어요.”

태평양과 미 서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이스라엘 영사관 총 책임자인 이스라엘 바샤르 총영사의 부인 레이첼 바샤르가 본지를 방문해 한인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평화가 빨리 찾아오길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아직도 납치되어 돌아오지 못한 미국인 5명을 포함해 총 12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며 검은 스카프를 쓰고 노란 리본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북가주 스톡턴 인근 로다이에서 태어난 그는 बैं킹 시스템 전문가였던 한인 2세 아버지를 따라 한국과 싱가포르 거주 경험을 갖고 있다. 소통 전문가로 뉴욕 PBS 등 방송에서 활동했던 그는 뉴욕 포담대학교 대학원(커뮤니케이션)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그는 이후 남편과 친가가 있는 이스라엘 모디인로 이주하면서 정식 유대인의 길에 들어섰다.

바샤르 총영사는 이스라엘 정계에 잘 알려진 정치 전략가다. 이스라엘을

에서는 전·현직 총리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3년 임기로 LA로 이주해온 바샤르 부부에게 10월 7일 하마스 테러는 큰 충격이었다. 바샤르 총영사는 지난해 10월 사태 직후 LA 시의회를 방문해 이스라엘 지지를 호소하며 얼굴을 알린 바 있다.

축발된 가지지구 총돌로 전 세계가 돌로 나뉜 상황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황이 엄중해 이스라엘과 영사관을 대표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평화적 해결과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보

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팔레스타인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소셜미디어에 보이는 많은 충돌 사진과 영상들은 사태 악화를 노리고 연출되거나 조작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극렬한 갈등에도 대화의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가주 일상에서도 긴장은 진행형이다. 캠퍼스 총돌과 길거리 시위와 폭력사태는 바샤르 가족에게도 어려운 현실이다.

“몇 주 전 피코 로버슨 커뮤니티에서 친팔레스타인 그룹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운전하던 길 왼쪽에는 친이스라엘, 오른쪽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만감이 교차했죠. 모두의 염원으로 평화가 조속히 찾아오길 바랍니다.”

청년 시기 3년 동안 서울에 거주한 경험을 갖고 있는 바샤르는 최근 한국의 발전과 변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는 물론 문화예술 측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해온 한국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남녀 모두 군 복무 제도가 있는 이스라엘은 교육과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과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더 많은 교류와 소통의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최인성 기자

특파원 칼럼

‘뒷모습’의 정치인

뒷모습은 한 사람의, 그러니까 한 인생의 요약본이다. 마치 난해한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생애 한 챕터에서 몰려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차마 다 해석할 수 없는 진실한 토막을 남긴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한 바로 다음 날, 어떤 뒷모습과 마주쳤다. 사퇴 압력을 받던 바이든 대통령이 끝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는 이야기. 분명 정치적인 판단이었겠지만, 그 이면에서 분투했을 그의 인간적 고뇌 쪽에 마음이 더 기울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사퇴 연설을 하는 오벌 오피스에는 가족사진이 즐비했다. 사퇴를 만류했다는 가족들. 그래서 후보직에서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에선 노화한 정치인의 단호함과 할아버지이자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미안함이 두루 읽혔다.

그의 뒷모습이 남긴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바이든의 뒷모습은 해리스의 앞모습이었다. 단단했던 ‘트럼프 대세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정치인이 스스로 돌아서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바이든의 단호한 뒷모습은 치열하고 내밀한 인간적 고뇌가 정치

인으로서는 욕망을 가까스로 눌러낸 결과일 것이다.

공교롭게도 바이든이 후보직에서 돌아서기로 한 바로 그 날, 한국에선 가수 김민기의 부고가 전해졌다. 스스로를 ‘뒷것’으로 부르며 일평생 뒷모습으로 남고자 했던 아티스트. 그가 남긴 ‘봉우리’라는 노래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높은 봉우리에서 스스로 내려가기로 결단한 바이든의 뒷모습은 미국 정치에 보기 드문 활력을 불어넣었다. 소속 정당이 위기에 빠지자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고 스스로 돌아선 뒷모습의 정치인. 정치 이념을 떠나서 바이든은 이런 사실만으로도 훗날 꽤 넉넉한 평가를 받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다.

여든두 살 미국 정치인의 단호한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올라가려는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떠올라 문득 쓸쓸해졌다.



정강현 워싱턴 특파원

“포트리 한인 총격 경관, 실수 인지한 듯”

피나클 아파트 이웃 주민 증언
“경관, 사건 직후 벽 부수고 갔다”

“구멍들 보이죠? 잔해도요. 총격을 가한 경관이 사건 직후 제 분을 못 이겨 부순 거예요. 실수란 걸 안 거죠.” (데이비드 스미스, 이웃)

지난달 28일 포트리 피나클 아파트서 발생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26)씨 피격 사건 가해 경관이 실수를 인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사건 현장에는 금주 들어 새로 깔아둔 카펫과 경관에 의해 파괴된 문 및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의 구멍 두 개가 눈에 띄었다.

같은 층 주민 데이비드 스미스(75)는 “사건 당일 경관들은 호주머니에 칼을 넣어둔 이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어께나 다른 곳을 조준할 순 없었는지 궁금하다. 총격을 하자마자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는지 욕도 하고 직후 엘리베이터 인근 벽을 다 부수고 갔다”고

했다.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씨가 가족이 두문불출했고, 주변과의 교류는 적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다투는 소리가 잦았으며, 앞집과의 불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에도 다투는 소리가 이어져 주민들이 귀를 세우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카렌(가명)은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이 사망한 무서운 사건”이라며 “복도에 있는 이씨를 보았다”고 했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지난달 28일 뉴저지주 포트리 피나클 아파트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피격 사건 현장에서 7일 이웃 주민 데이비드 스미스씨가 가해 경관이 부수고 간 벽의 흔적(빨간 원안)을 가리키고 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유자의 딸인 **마이클 장**

딸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아라조) 웨일리노레방
300m 뉴타운
미락초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검찰 “바이든 차남, 금품 수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헨터 바이든이 미국 정부에 로비해 외국 형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헨터 바이든 [AP 연합뉴스]

AP통신은 7일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특검에 따르면 헨터는 부친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 루마니아 출신 사업가 가브리엘 포포비치우와 계약을 맺었다.

당시 포포비치우는 루마니아에서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었다. 포포비치우는 미국 정부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루마니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달라면서 300만 달러(약 41억3천만 원)를 헨터와 동업자들에게 지불했다.

헨터는 로비 사실이 드러나면 부친이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루마니아에 위치한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내용의 가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는 것이 웨이스 특검 측의 수사 결과다.

특검 측은 “포포비치우가 헨터에게 돈을 지불한 실제 이유는 다르다”라며 “이들은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루마니아 정부의 형사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포포비치우는 지난 2017년 루마니아에서 부동산 사기 혐의로 7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헨터와 함께 계약했던 동업자도 조만간 법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증언할 예정이다. 술과 마약 중독 문제를 겪으면서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린 헨터는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헨터는 이전에도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화당은 헨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고, 중국의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으면서 의혹을 제기해왔다.

헨터는 사업에 부친인 바이든 대통령을 이용한 적이 결코 없었다면서 “공화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유세 방해 ‘친팔’ 시위대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유세를 방해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가 이기길 원하느냐’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미시간주에서 유세하는 해리스 부통령 [신화=연합뉴스]

해리스 부통령은 7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교에서 열린 유세 때 연설하던 중 “카말라, 카말라, 당신은 숨을 수 없다. 우리는 학살을 위해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는 일군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마주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잠시 발언을 멈춘 채 자신은 민주주의를 믿고 모든 사람의 발언권이 중요함을 믿는다고 밝힌 뒤 “하지만 지금 내가 연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시위대가 계속 구호를 외치자 해리스 부통령은 “당신들 그

태도에 청중들은 환호하며 시위대에 연설 방해를 중단하라고 외치는 등 해리스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 유세 계기에 친팔레스타인 계열 행동가들과 소통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해리스 부통령 참모를 인용해 보도했다.

친팔레스타인 단체 측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논의에 열린 태도를 보였다고 발표했지만 해리스 측이 이를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10개월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동 문제에 대해 미묘한 ‘줄타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 러 본토 최대 규모 공격했다... “국경 넘어 10~15km 진격”

탱크·장갑차로 러 쿠르스크주 공격 러 “우크라이나 100명 사망, 격퇴” 주장 미국 “사전에 몰랐다” 확전에 난감



우크라이나군이 6일 도네츠크주 차시우아르 전선에서 러시아 진지를 향해 대전차용 무반동포 SPGR을 발사했다. [AP=연합뉴스]

2022년 2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러시아 본토에서 최대 규모의 지상전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오전 5시30분부터 전차와 장갑차 등 육군 병력을 동원해 점령지대인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 방면을 공격 중이다. 러시아군은 최대 10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해 우크라이나군이 최소 100명 사망하고 215명이 다쳤으며, 전차 7대를 포함해 54대의 우크라이나군 장비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독립언론 시레나는 11개 마을이 우크라이나군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미확인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한 유명 군사 블로거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으로 수출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시설 역시 우크라이나군에 점거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전투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국경에서 10~15km를 진격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도 있다. 러시아군도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했다가 “러시아군의 화력에 적이 피해를 보았다”고 정정했다고 한다. CNN은 “비디오 영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주

요 표적이 된 마을에 진입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마을이 포격받은 것은 영상에서 확인된다”고 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사전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며 “우리는 보도를 봤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목표에 대해 더 파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의 확전을 막기 위해 미군 무기를 이용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불허하다가 최근에 제한적 조건에서 이를 허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정부 회의를 주재하며 “(우크라이나가) 민간 건물, 빌딩, 구급차 등을 향해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무기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며 “대규모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의 부의장은 8일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한 진격을 주장했다.

중동 지역의 정세 역시 폭발 직전의 긴장감을 이어가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7일 하마스의 새 최고정치지도자로 선출된 야히야 신와르를 향해 “하마스가 다시 한번 정치국 수장을 교체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이날 열린 이슬람협력기구(OIC) 긴급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 정권의 침략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합법적인 방어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유엔에 공을 떠넘겨 다소 유화적 태도를 보였으나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이란과 별개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1.7만건 줄어

(전주 대비)

23.3만건 신규 청구, 예상치 하회 발표 후 나스닥 선물지수 1% 올라

미 노동부는 지난주(7월 28일~8월 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000건으로, 전주(25만건)보다 1만 7000건 줄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예상치(24만1000건)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5000건으로 예상치(187만 건)를 소폭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

이번 지표는 미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이달 초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과는 차이를 보이면서 고용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었다.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4000명 늘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고, 실업률이 4.3%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다. 이에 시장은 이날 발표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주시했는데, 전주 대비 줄

어든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지수는 각각 1%·0.7% 상승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7월 고용보고서로 증시가 급락한 뒤라 작은 지표도 시장이 예민하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낮은 수준인 점, 이민자로 인해 노동공급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침체를 단정짓긴 이르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다음 달 초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 등을 살펴본 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전망이다. 만일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하거나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될 경우, 인하 폭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오호정 기자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자 리스닝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SOLD Bowie \$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	UNDER CONTRACT Edgewater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SOLD Rockville \$280,000 콘도	COMING SOON Perry Hall 싱글홈, 방3, 화2	UNDER CONTRACT Elkridge \$559,000 타운홈, 방4, 화3, 차고2
UNDER CONTRACT Elkridge \$950,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COMING SOON Rockville 싱글홈, 방5, 화2, 차고2	SOLD Cockeysville \$470,000 싱글홈, 방4, 화2.5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NTED Elkridge 월 \$2,400 타운홈 방3, 화3	RENTED Sliver Spring 월 \$3,500 타운홈	RENTED Germantown 월 \$2,100 콘도 방2, 화2	RENTED Hanover 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	RENTED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RENTED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	--	--	---	--	---	--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혈관 청소 **세종송보감**에서 —
면역력 최고 **세종후코이단**까지



기록으로 'Sejong15'을 저서한
산타할 수 있습니다! TALK

세종바이오텍
라디오방송
캠페인
라디오워싱턴
AM1310:
매주 금요일 2:30pm

“혈관청소가 면역의 시작입니다”

백세건강의 만사형통은 만사혈통입니다.

전통술임을 연구, 개발된 혈관청소 대표브랜드

세종 송보감 **FORTE**

G.M.P 의약품제조기준, 식약처 인정



특점 전통술임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고농축 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솔잎글루코사이드캡슐
항암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명품

세종 기관지정보감

현대인의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까지 해결하세요



하루 1정 복용, 60capsules 2명, 1박스 4개월

“더 좋은 후코이단을 기다리셨어요?”
세종 후코이단입니다!



• 최대함량, 최고순도 후코이단으로 개발된 세종후코이단
• GMP 마크, 원산지까지 청정 후코이단 세종후코이단
• 항암효과의 대명사 프코비섯까지 함유된 세종후코이단

“속~쓰림 힘드시죠?”
세종 속편환



• 비타메이트연구소가 연구개발한 세종속편환
• 식약처(KFDA)가 효능을 인정한 세종속편환
• 위장장애, 속쓰림 등을 해결한 천연제품 세종속편환

“소변관리, 이젠 걱정 없어요”
세종 요로정보감



방광염·요로stone, 요로감염증, 요실금으로 힘드시죠?
신장, 방광, 요로 건강엔 세종요로정보감이랍니다.

자극지극한 관절통증으로 힘드시죠?
“이제부터 편히 웃으세요!”
세종 관절보감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손목, 발목 등
관절염을 관절, 연골이상에 식약처에서 효능이
인정된 세종관절보감이 편안하게 도와 드립니다.

기력으로 힘드시죠?
高麗 효삼정
“기력회복, 원기충만, 관절건강”



• 현대인의 장기능까지 고려하여 생체 흡수율을 제고한 고麗효삼정
• 기존효삼의 효능에 김파문드케이와 효능까지 배가된 발효효삼
• 식약처의 인증, GMP마크, 7가지 효능이 인정된 최고의 발효효삼

깜박깜박하세요? 치매 예방!
세종 뇌보감
Brain Health Formula



• 기억력개선, 건강증진, 치매예방
• 인지기능개선, 뇌혈행개선을 위한 뇌보감
• 두뇌영양을 통한 기억력개선 촉진

장건강을 위한
500억 균수
세종유산균



당뇨잡는
당뇨비타민
세종여주



보름만으로
면역을 지키세요
세종후코30정



신제품 세종 후코펫 출시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GMP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효과, 면역력증대, 체질개선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진완화,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Sejongbiotech, Inc.
세종바이오텍
www.sejongbiotech.com www.sejongbiopet.com

703-256-7671

www.sejongbiotech.com
미 전역 UPS 무료배송

소형주택 건설 붐... 주택 구매력 상승 효과

작년 중간면적 2233sqft
8년 사이에 크기 9% 줄어
가격도 1만달러 정도 낮아
싱글 구매자 많아져 인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주택 건설이 증가하면서 바이어의 주택 구매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로이테]

신규 주택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 예비 바이어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가 첫 주택구매자를 잡으려고 소형 주택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고 CNN은 최근 보도했다.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대형 주택이 인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앨런 래트너널 맨앤어소시에이트 주택건설 애널리스트는 “주택 구매 여력 하락으로 대형 주택 선호 추세가 변화 중”이라며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예비 바이어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택구매자는 2067스퀘어피트 규모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2003년에는 2260스퀘어피트였다. 소형 주택 선호도가 높아지자 건설업체도 크기를 줄이는 추세다. NAHB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약 38%가 2023년에 더 작은 주택을 지었다고 답했고, 26%는 올해 더 작은 주택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건축된 단독주택 중간 면적은 2233스퀘어피트. 2015년 정점을 찍은 2467스퀘어피트에서 9% 줄었다. 전국 최대 주택건설업체인 D.R. 호튼은 “바이어들의 구매 여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 크기를 줄일 계획”이라며 “평균 주택 크기가 작년 대비 2% 감소

했다”고 밝혔다. 주택구매 선호도의 변화에 더해 이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일조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규정을 완화하면서 더 작은 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택구매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도 주택 소형화를 견인하고 있다. 제시카 라우츠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주택구매자의 약 30%가 싱글”이라며 “2000스퀘어피트 주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 소형화가 주택구매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NAR에 따르면 기존 주택 중간 매매 가격은 6월 42만6900달러로 뛰었다. 반면 크기가 작아진 신규 주택 중간가격은 약 1만달러 저렴한 41만7300달러였다. 이은영 기자

브리프

델, 1만2500명 감원

델 테크놀로지가 대규모 직원을 감원을 발표하며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

7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델은 관리 체계를 간소화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 위해 직원 수를 10만 명 미만으로 줄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감원은 특히 영업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델은 정확한 감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약 1만2500명으로 매체는 추정했다.

빌 스캐넬과 존 번 델 공동 최고 운영책임자(COO)는 “새로운 글로벌 영업 조직 구조와 운영 모델을 구축해 팀을 통합하고 영업팀의 판매 집중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원은 고객과의 접점이 다변화되고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델은 지난 15개월 동안 2만45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테슬라, 태국 공장 계획 철회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태국에 전기차 제조 공장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충전소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매체 네이션 타임즈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데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충전소에 대해서만 논의 중이다. 소식통은 “현재 테슬라의 공장 건설 계획은 중국과 미국, 독일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철회 결정은 태국에 공장 설립을 추진했던 테슬라 고위 임원 로한 파텔이 해고된 이후 이루어졌다.

세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지난해 11월 테슬라가 태국을 전기차 제조 허브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파텔은 지난해 11월 태국의 초청을 받아 축제에 참여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총리는 태국에서 잠재적인 공장 부지 3곳을 조사해 올해 1분기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파텔의 해고로 테슬라는 태국에 대한 투자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카드빚 1조1400억불 사상 최대 60% 장기연체

연체율도 13년래 최고
평균 부채는 6218달러



크레딧카드 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장기연체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카드 부채는 2분기 1조140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70억 달러(5.8%) 증가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크레딧카드 부채는 팬데믹 발발 직후 감소했다가 2021년 이후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크레딧카드 연체율(30일 이상)은 작년 2분기 7.2%에서 올해 2분기 9.1%로 올랐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1년 1분기(9.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율도 작년 2분기 5.1%에서 올해 2분기 7.2%로 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소비자금융서비스업체 뱅크레이트는 크레딧카드 부채가 있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최소 1년 이상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다고 지난 6일 전했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1년(50%)보다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또 크레딧카드 소지자 중 절반(50%)은 매달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며, 올 1월과 비교해도 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크레딧카드 평균 부채는 6218달러로, 이자율 20.78%로 매달 최소 금액을 상환할 경우 청산까지 18년이 걸린다는 게 정보업체 트랜스유니언의 설명이다. 이자 로만 9300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환 부담을 가중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체 소비자 34%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2022년 이후 빚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응답했다. 같은 기간 가파르게 상승한 기준금리 영향이 크다고 한 응답률은 32%였다.

특히 18~29세 젊은 층의 카드 장기연체율이 10.5%로 가장 높았고, 30~39세도 9.7%로 뒤를 이었다. 서재선 기자

월드옥타 차세대 무역 스쿨
10월 4~6일 캐나다 밴쿠버서
차세대 한인들을 성공적인 무역 경제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창업무역스쿨이 열린다. 세계적인무역협회 LA지회(옥타LA·회장 에드워드 손)는 2024년 22차 월드옥타 북미서부 차세대 통합 글로벌창업무역스쿨을 10월 4~6일 힐튼 밴쿠버 에어포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밴쿠버세계한인무역협회 주관으로 캐나다 밴쿠버, 캘거리, 덴버, 휴스턴, LA, 시애틀, 샌디에이고, 애드먼턴 등 북미 서부 8개 지회 통합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100명으로 참가비는 260달러, 15일까지 조기 등록하면 230달러다. 참가신청은 온라인 양식(url.kr/ckfhte)을 이용해 할 수 있다. >문의: (323)939-6582 이은영 기자

코스트코, 회원 확인 스캐너 도입

사진 부착 회원카드 있어야 입장

코스트코가 비회원의 매장 이용을 막기 위해 입구에 회원확인용 스캐너를 도입하고 있다.

7일 폭스LA뉴스는 남가주 지역 코스트코 매장 입구에 회원확인용 신분증(ID) 확인 스캐너가 설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월 코스트코 측은 모든 매장 입구에 회원확인용 스캐너 설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버뱅크 매장 입구에도 회원확인용 스캐너가 설치됐다. 코스트코를 찾은 회원은 스캐너기에 사진이 들어간 카드형 회원카드 또는 디지털 카드를 찍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비회원인 게스트가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트코 회

원과 동행해야 한다. 다만 검안을 위한 방문객, 약국 방문객은 회원카드가 필요 없다. 기존에는 매장 직원이 입구에서 회원 여부를 확인했다. 일부 회원들은 코스트코 측의 회원확인 강화 정책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회원카드를 직접 스캔하고, 나갈 때도 회원카드를 보여줘야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직원은 줄이고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스트코 측은 회원확인용 스캐너를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을 위해 매장 직원도 상주한다고 밝혔다. 회원이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회원카드를 가져갈 경우 운전면허증 등 별도 신분증(ID)을 보여줘야 한다. 김형재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문기



<p>DC 창고</p> <p>SOLD</p> <p>\$2.5M DC, NoMa Metro 상권</p>	<p>DC 사평센터</p> <p>SOLD</p> <p>\$2.4M DC, Capital Hill 지역</p>	<p>DC 단독건물</p> <p>SOLD</p> <p>\$1.5M Benning Rd. 개발지역</p>	<p>DC Mixed-Use</p> <p>SOLD</p> <p>\$1.6M Capital Hill 지역</p>	<p>DC 사평센터</p> <p>SOLD</p> <p>\$4.5M Popeyes, 연인룸 \$32만</p>	<p>DC NW 아파트</p> <p>SOLD</p> <p>\$1.5M Metro 상권, 5유닛</p>	<p>DC 건물 리스팅하실 분들</p> <p>미엘신 케민신</p> <p>703.395.3123</p> <p>POWER BROKER</p>
<p>DC Georgetown</p> <p>SOLD</p> <p>\$1.5M Retail / Residential</p>	<p>DC H Street</p> <p>LEASED</p> <p>단독건물 Union Station</p>	<p>DC Warehouse</p> <p>SOLD</p> <p>\$6.8M 67,000sf, Industrial</p>	<p>DC Warehouse</p> <p>SOLD</p> <p>\$5.8M 56,000sf, 창고 6에이커</p>	<p>DC Warehouse</p> <p>SOLD</p> <p>\$3.6M 냉장 / 냉동고, 창고</p>	<p>for SALE</p> <p>\$1.8M DC 3유닛 주상복합</p>	

독점 FAIRFAX VA **타운홈**

방3, 화 2½, 업데이트된 부엌, 밝고 환한집, 새페인트, 나무마루, NEW DECK, 워아웃베이스먼트 **\$600,000**



Contract

독점 ANNANDALE VA **콘도**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375,000**



독점 RESTON VA **타운홈**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479,900**



Contract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Contract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579,900**



S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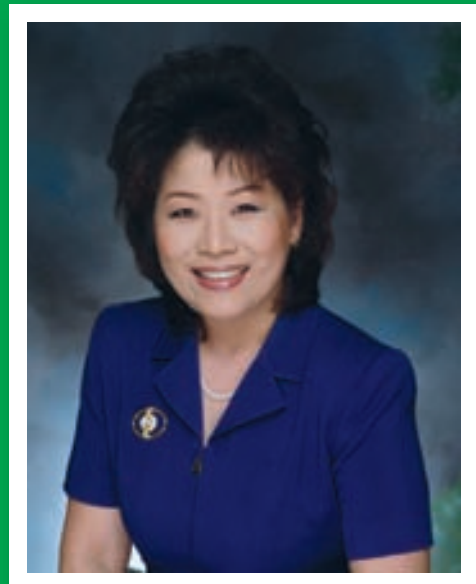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BEAT THE HEAT KOREAN STYLE

Energize your body with the best quality and taste at H Mart. **폭폭찌는 삼복더위! 무더운 여름을 H 마트와 함께 이겨내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VA/ H MART MD



VA/MD WEEKLY SALE AUG. 9th - AUG. 15th, 2024

Grid of fresh produce items with prices: Kent Mango 8's \$7.99, #1 Washington Red Cherry \$2.49, Sugar Kiss Melon \$0.99, DRISCOLL'S Strawberry \$3.99, DRISCOLL'S Blueberry \$2.49, White Donut Peach \$2.49, Green Plum \$2.99, White Nectarine/Peach \$9.99, Korean Melon \$17.99, K-TOWN Tofu \$0.99, White Flat Cabbage \$0.59, Champagne Honey Mango \$5.99, Packed Persian Mini Cucumber \$0.99, Bagged Yellow Onion \$6.99, Green Leaf Lettuce \$0.99, Tomato \$0.99, Korean Pepper \$1.99, White Mushroom \$1.2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Items include: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7.99, Fresh Hand Sliced Pork Butt Steak \$5.49, Frozen Chicken \$2.99, Frozen Thinly Sliced Beef Brisket \$9.99, Fresh Pork Leg Bones \$1.49, Marinated Boneless Thigh Chicken \$3.9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Items include: Fresh Swordfish \$7.99, Fresh Cod \$3.99, SUHYUP Frozen King Hairtail \$27.99, Frozen Dried Premium Fillet Fish \$12.99, Frozen Whole Cuttlefish \$6.99, Frozen King Crab Cluster \$19.99

SMART CARD MEMBER ONLY. Items include: KYONGGIME Medium Grain Rice \$11.99, Jumbo Seedless Watermelon \$3.99, NONGSHIM Bowl Noodle Soup \$9.99,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8.99, DONGWON Canned Tuna \$7.99, PULMUONE Seaweed \$7.99

ORGANIC All natural certified delicious. Items include: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Short Grain Rice \$39.99, STONYFIELD Organic Milk \$3.99, TODAY'S FARM Organic Grade A Large Brown Eggs \$4.69

Various packaged food items: RAW NATURE Sweet Rice \$12.99, SAMYANG Buldak Ramen \$5.99, GUDOEK Green Plum Tree Plum Extract \$7.99, BEYOND THE OCEAN Frozen Small Octopus \$10.99, SANGRIME/UCHEN Herbal/Broth Tea Bag \$3.4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9.99, PULMUONE Dry Miso Soup Mix \$3.99

TOBAGI SAME GREAT TASTE, NEW LOOK! 맛은 그대로예요. Items include: Kimchi, Miso, etc.

HELLO HOME SMILE, YOU'RE HOME! Items include: Waffle Washable Slippers \$7.99, HELLO HOME Towel Gift Set \$8.99, Check Bear Towel \$9.99, KOTO Portable Charcoal Mini BBQ Grill \$10.99, KOTO BBQ Grill Net \$3.99

Various packaged food items: NONGHYUP Andong Sunbi Maeul Red Pepper Powder \$19.99, OTTOGI 3 Min Sauce \$2.49, JINGA Rice Porridge \$11.99, TODAY'S FARM Grade A Medium White Eggs \$3.49, PK Instant food \$5.99, PULMUONE Noodles \$3.99, BOKMANSANG BABA Kimbap \$5.99, BINGGRAE Melona Ice Bar \$4.99, OHSUNG/K TOWN Snacks \$1.99, HAITAI Ace Crackers \$3.99

WELCOME TO GYEONGBUK Enjoy our annual festival of groceries from the northern province of Gyeong Sang. AUG. 9th - AUG. 22nd, 2024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쿠폰 받자! Add KakaoTalk Channel, Get a Coupon! \$10 OFF COUPON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er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ofi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음식점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VA/MD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해리스 가는 곳마다 장사진 ... "바이든 때와 달라"

대선 승부처 펜실베이니아 르포

민주당 후보 지명 뒤 더 뜨거워져
위스콘신선 예상보다 2배 더 몰려
트럼프 "공산주의 울 것" 색깔공세



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오클레어에서 유세하는 민주당 대선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러닝메이트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클레어 공항에 도착하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위원. 뒤편에 보이는 건 해리스 부통령의 전용기. [AFP·AP=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위스콘신 유세에 약 1만5000명이 운집했다. 당초 8000여 명 참석을 예상했으나 더 많은 지지자가 몰려 유세장 진입에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시간에도 약 1만 명의 지지자가 모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과 TV토론 참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알살미수 사건을 거치며 패배감이 팽배했던 민주당의 분위기가 해리스의 사실상 대선 출정식이 됐던 지난 6일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유세(1만5000여 명 참석)를 기점으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해리스 선대위는 지난 5일 윌즈를 부통령 후보로 공개한 이후 24시간 동안 3600만 달러(약 495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만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정은 상기돼 있었다. 자신을 펜실베이니아 토박이라고 소개한 팀 스콧은 "소극적이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바이든 때와는 확연하게 달랐던 해리스

의 열정과 에너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유세장을 찾은 앤서니 휴스는 "해리스가 윌즈나 조시 서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중 누구를 택하느냐는 이제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고, 해리스가 윌즈가 아니라 숲에 있는 돌이나 나무, 풀을 택했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11월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부 공업지대)의 중심지 펜실베이니아에는 경합주 중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는 쪽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펜실베이니아 표심은 투표 성향이 유사한 인근 위스콘신(10명)·미시간(15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는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며 바이든의 고령 논란에 가려 있던 트럼프 관련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확대하고, 민주당 내 결집과 자신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날 자신의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유형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 구속"이라고 외쳤다.

해리스 지지자들은 해리스와 윌즈를 '급진 좌파'로 몰아세우는 트럼프의 전략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올리비아 테일러는 "해리스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트럼프와 밴스가 헛소리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아나 그

린은 "트럼프의 전략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37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미국 최대 노조 전미자동차노조(UAW) 순 페인 위원장은 이날 미시간 유세에서 "해리스는 파업 노동자들과 함께 피켓 라인에 섰던 여성이고, 윌즈는 우리 노동계급의 한 사람"이라며 "트럼프는 억만장자 계층의 앞잡이자 배반자(scab)"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배반자'란 구호를 따라 외쳤다.

해리스가 주요 경합주를 순회하는 가운데 이번 주 공지된 트럼프의 공식 일정은 9일 몬태나 유세가 유일하다. 트럼프를 대신해 러닝메이트 JD 밴스(오하이오) 상원위원은 전날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이날 위스콘신과 미시간 등 해리스의 유세가 열린 지역에서 '맞

불 유세'를 이어갔다. 트럼프는 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해리스와 윌즈)은 미국이 즉시, 아니 더 빨리 공산주의가 되기를 바랄 것"이라며 '색깔 공세'에 나섰다. 특히 윌즈에 대해서는 "너무 진보적인 사람으로 충격적"이라며 "나는 정말로 신이 난다"고 했다.

트럼프는 해리스·윌즈로 진용을 갖춘 민주당에 대해 "내 반응을 묻는다면 '믿기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하겠다"며 "윌즈는 (해리스의) 스마트 버전이자, (진보인) 버니 샌더스와 동급이거나 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급진적인) 팀은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미국의 안보를 비롯한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윌즈에 대해서는 "트랜스젠더에 매우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했다. 윌즈가 과거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관련한 법안에 서명한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트럼프는 또 유력하게 거론되던 서피로가 부통령 후보로 발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친 팔레스타인계 지지층 때문에 유대인 서피로 카드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투표하는 유대인이 있다면 당장 두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필라델피아=강태화 특파원

▶ '1면 '류리서치' 에서 이어집니다

▶ 소득 및 부채

소득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층이 줄어든 것이다. 2020년 48.0%였던 소득 5만 달러 응답자의 비율은 36.9%로 10%포인트 이상 줄어들었다. 보통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연 소득 11만 달러 이상의 비율은 2020년 13.2%에서 20.7%로 올라갔다. 팬데믹에 타격을 입었던 한인들의 소득수준이 제자리를 찾았고 일부는 투자 소득 등의 증가로 수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연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는데 2012년 0.8%에서 2020년엔 2.5%로 올랐고 2023년엔 4.3%나 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가 빚을 지고 있었다. 부채의 주원인으로는 생활비 총당(60.9%), 사업자금 마련(29.6%), 자녀 교육자금(29.6%)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래프 2> 한인사

회의 소득수준이 올라감에도 생활비를 위해 부채를 지게 된 비율이 높은 것은 고물가와 경기 하강으로 고소득층 또한 어려움을 겪는 세태를 보여준다. 이는 비단 한인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2023년 초 소비자 금융 업체 렌딩 클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중 전혀 저축하지 못하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페이체크-투-페이체크'로 살아가고 있다는 비율은 절반을 넘는 51%였다. 이는 전년의 42%에서 9%포인트 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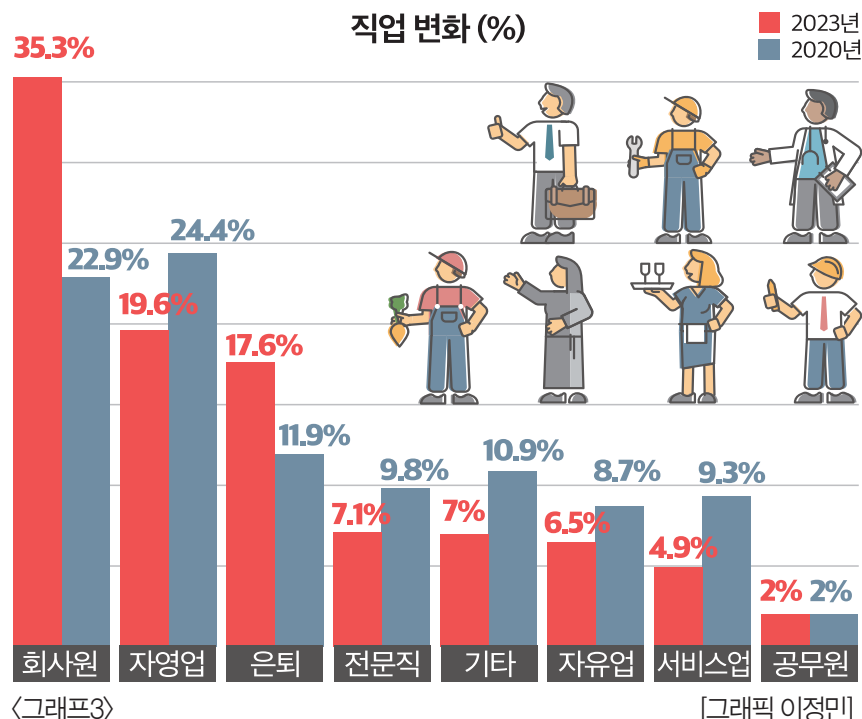
연령대 별로 보면 '빚을 내서라도 써야 하는 돈'이 무엇인지 보인다. 사업자금의 마련이 부채의 주원인이라 답한 사람의 비율은 4·5·60대에서 높게 나와서 이 연령대에서는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 교육자금 때문에 돈을 빌렸던 응답의 비율은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을 졸업하기

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충이 보였다.

▶ 직업

은퇴자와 회사원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그래프 3> 2012년 3.2%였던 은퇴자의 비율은 2020년 11.9%로 훌쩍 뛰었고 이후 3년 만에 17.6%까지 올라갔다. 2006년부터 있었던 5번의 조사에서 20% 초·중반대에서 계속 머물던 자영업자의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20%에도 못 미치는 19.6%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는 줄고 은퇴자가 늘어난 것은 자영업으로 경제적 기반을 닦았던 이민 1세대들이 대거 은퇴하는 세태와 일치한다.

2020년에 22.9%였던 직장인이라는 응답은 크게 뛰어 35.3%를 기록했다. 다만 2012년 조사에서 40.1%의 응답자가 직장인이었다. 이는 팬데믹이 한창일 당시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직장인의 비율이 급감했다가 3년 후 고용상황이 나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3.6%였던 자영업은 2020년



에 8.7%로 두 배 이상 뛰었다가 2023년에는 6.3%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팬데믹 시절 우버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 등에 뛰어들었던 한인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조원희 기자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컵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희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패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703-259-5617, 410-241-2520

coway

코웨이

Summer Party

기간: 2024년 7월 27일 ~ 8월 27일

프로모션 1

해당 정수기 신규렌탈 시



\$150 VISA 카드 증정



• 주문조건: 해당 정수기 제품 6년 신규 렌탈시 (재렌탈 제외)
• 해당제품: CHP-6330L, CHP-251L, CHP-671L, CHP-5722L, CHP-5710L, CHP1-280L, CHP1-620L PLUS

프로모션 2

해당제품 2대 렌탈 or 구매 시



\$150 VISA 카드 증정



• 주문조건: 신규렌탈 1대 + 신규렌탈/재렌탈/일시물 1대
• 해당제품: CHP-6330L, CHP-251L, CHP-671L, CHP-5722L, CHP-5710L, CHP1-280L, CHP1-620L PLUS, AP-1516D, AP-2021A, AP-3018B, BA-13, BAS-22, BB-14BUS, 안마의자
• 고객번호당 1회 제한

프로모션 3 안마의자 렌탈시

등록비 \$900 할인



• 해당제품 등록비 \$900 구간 렌탈시

사은품은 조기 품절 시 사전공지없이 다른 사은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판매인에게 문의바랍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디자인은 당사의 지적재산으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DMV지역 코웨이 법인매장



베세토 지하 1층
822 N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센터빌 롯데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H MART
13818 Braddock Rd, Centreville, VA 20121

제품 구입 및 문의는 해당 매장을 방문해주세요

Washington, DC **703-992-0835**



Re:BLUETION
깨끗함의 무한책임

여·야·정 협의체 구성 줄다리기 시작... 대통령 참여 놓고 팽팽

여당 “협의체, 조건없이 구성해야”
야당 “대통령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순직상병특검법도 세 번째 재발의
용산 “탄핵·특검 남발, 진정성 의문”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최고위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민규 기자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개원 후 두 달 넘게 정쟁만 일삼던 22대 국회에 처음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동 뒤 배 수석은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급 쟁점이 남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녀 사망 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과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은 이른 시일 내에 타협이 가능한 법안으로 거론된다. 피해 구제 방식에 대한 이견이 컸던 전세사기특별법에 관해선 최근 여야가 피해 주택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 절충안을 논의 중이다.

22대 국회 들어 순직해병 특검법,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모두 거야 입법 독주의 결과물이었다. 여야가 일부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선 것은 ‘타임프 사태’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한다는 따가운 여론 때문이다.

하지만 얼어붙은 정국이 단번에 ‘해빙 무드’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이날도 민주당은 연거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하며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못 박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에서는 휴전협

상에 나올 듯이 말해 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궁리만 하는 화전양면전술”이라며 “민주당이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특검법안 발의 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날 원내수석 회동에서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여부를 두고 여야는 평행선이었다. 배 수석은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고 했지만, 박 수석은 “전제조건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수석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안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 또는 여야 원내대표단 초청을 통해 민생회복과 관련한 진정한 안을 내놓고 서로 협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여야 관계가 발전할 수 있겠나”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건 있는 연금개혁·세제 개편 등을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는 게 협의체 구성 취지”라며 “영수회담과 협의체 구성은 별개 문제”라고 반박했다.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과 특검법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민생에 대한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당 수석은 “뚜벅뚜벅 ‘베이비시프(baby step)’부터 간다는 차원”이라며 “만나고 협의하고 결론 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는”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 재량과 자율 권한을 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라며 “국정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함께하셔야 의미가 있다. 여야 상설협의체만 가지고선 책임과 자율,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극한 대치에 대해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에 단서를 단 것이다. 그는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 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 대통령의 ‘묻지 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나, 타협이나, 협치나 하는 것들이 가능이나 하겠나”고 지적했다. 전날 자신이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휴가를 마치셔야 하고, (민주당이) 다음 주말이 되면 새로운 당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며 “관련 의제에 대한 조율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정·성지원 기자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인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운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와 두 아들의 강남 8학군 위장전입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뉴스1]

김경수·조운선, 광복절 복권... “대통령 최종결정만 남아”

〈전 경남도지사전 청와대 정무수석〉
법무부 사면심사위, 대상에 포함
야당 “제2 대선주자 생긴 점 환영”
일각선 “야권 분열 노림수 의심”
현기환·안종범·원세훈 등도 포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5일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조운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특별사면·복권의 시기와 규모 등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사면법 절차상 대상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대상자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하는 만큼 선정 과정에서

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야권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2023년 신년 특사 대상자가 돼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이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최종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는 물론, 2027년 3월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내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김 전 지사가 복권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 외에도 제2의 대선주자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비명계 인사도 “이재명 일각계제로 흐르는 당 상황에서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며 “김 전 지사 중심으로 비명계가 한데 뭉칠 것”이라고 했다. 친노무현·친문재민계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김 전 지사가 단순히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에 “여권이 김 전 지사 복권을 고리로 민주당 분열을 또 노린 건 아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남아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사면 이후 복권은 언제가 해야 할 절차고, (김 전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정치권의 의견도 있다”며 “야권 분열 그런 의도는 없다. 그랬다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워 추가 집행은 없었지만, 복권받지 못한 상황이다. 청와대가 보수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정무수석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 전 정책조정수석도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원 전 국정원장은 특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서는 2023년 8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인·김정민·석경민·김효성 기자

<p>주6일 프렌차이즈 \$320K 인컴 \$1만 페어팩스 버지니아</p>	<p>주6일 Deli \$370K 인컴 \$2만 몽고메리 메릴랜드</p>	<p>주6일 Deli \$180K 인컴 \$1만 PG 메릴랜드</p>	<p>주6일 Deli \$250K 인컴 \$1만 페어팩스 버지니아</p>	<p>프렌차이즈 / 카워시 / 리커</p> <p>703.395.3123 </p>
--	---	---	---	--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헬스장, BTS 노래 틀다가 무더기 피소 ... 무슨 사연 있길래

체육관·헬스장 vs 음저협 갈등
6년전 저작권법 개정, 사용료 의무화
헬스장 “몰래 찾아와 녹음 뒤 고소”
합의금 요구 행위에 불만 터뜨려
음저협 “적법 절차 따른 정당한 징수”

다중이용 시설에서 음악을 재생할 경우 부과되는 ‘공연권료’를 두고 헬스장·체육관 관장들과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갈등을 빚고 있다. 헬스장 관장 약 3만명을 회원으로 둔 네이버 카페 ‘헬관모’(헬스클럽관장모임) 측은 8일 음저협 측이 헬스장으로 찾아와 배경 음악을 몰래 녹음한 다음 사전 안내도 없이 법적 조치부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음저협 측은 “법이 개정된

지 6년이 지났는데 저작권이 있는 음악 이용료를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에 따른 정당한 징수”라고 반박했다.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카페나 체육관·헬스장, 복합쇼핑몰 및 대규모 점포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 등에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4년째 헬스장을 운영 중인 이모(36)씨는 지난 6월쯤 경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음저협 측이 헬스장을 개관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음악 이용료 9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는 게 이씨 주장이다. 이

씨는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문도 거의 열지 못했는데 이런 점은 반영해주지 않으면서 합의금 요구부터 한 건 ‘음피아’(음악+마피아)나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모(54)씨도 “지난 7월쯤 음저협 관계자가 헬스장에 몰래 방문해 (재생되는 음악을) 녹음해갔다고 하더라”며 “입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34개월 어치의 음악 1곡 이용료로 71만원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문체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음저협이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관리곡 미승인 사용 및 사용료 미납부’ 등으로 업주를 고소한 건수는 3200여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음저협은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뤄졌고, 적법한 증거 수집

과 징수가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음저협 관계자는 “납부 대상 음악 사용이 확인될 경우 수차례 방문해서 납부를 권유하고 있다”며 “고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사용료가 연체될 경우 매달 업소 방문 및 업주에게 통화·문자 등을 보낸다. 고소는 6개월 이상 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 수집은 헬스장 등을 방문할 때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동의를 구한 다음 진행하고 있다”며 “몰래 들어와서 녹음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행사고소를 한다는 건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음저협의 이용료 징수 자체는 정당하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연권’을 법에 규정했지만 무엇을 공연으로 볼 것이고, 관객이 얼마나 되는지 등 생각해볼 지점이 많아 현실에선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갈등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음저협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고소를 우선하는 걸 보면 공연권을 새로운 금액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지난 6월 음저협에 “소액사건 관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형사고소보다 민사적 조치를 우선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혜연 기자



인천공항에 배치된 국내 첫 빈대 탐지견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빈대 탐지견 시연회에서 국내 1호 빈대 탐지견 ‘세코’가 수하물을 탐색하고 있다. ‘세코’는 빈대 특유의 페로몬 냄새를 탐지하는 뇌의 영역이 사람의 40배이며 빈대만 탐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았다. [연합뉴스]

‘SM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기소, 카카오 “경영공백 최소화”

자본시장법 위반여부가 핵심 쟁점
검찰 “증거 충분” 카카오 “정상거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흥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

수하는 과정에서 SM엔터 주가를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검찰 수사 대상이다. 당시 카카오 측은 SM엔터 보유 지분(8.16%)이 5%를 넘었는데도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에선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의 성립 여부를 두고 김 위원장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 아울러, 정신인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 변호인단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까지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근 기자

배드민턴협회 임원은 40명, 기부금은 ‘0’ ... 재정자립도 꼴찌

(금메달 배출 종목 중)

체육진흥기금 등서 보조금 120억
임원 수 축구협회보다 많아 논란도
양궁협회, 기부금 87억원으로 1위

정부가 ‘셔틀콕 황제’ 안세영(22·삼성생명)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간 불거진 선수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경위 파악을 예고한 가운데, 배드민턴협회의 재정자립도가 금메달리스트를 탄생시킨 협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드민턴협회는 임원진만 40명에 이르는데, 다른 종목과 달리 회장·임원의 기부금은 ‘0원’이었다.

9일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21개 종목의 협회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드민턴협회의 재정자립도는

46.73%(2023년 기준)였다. 협회의 전체 수입에서 정부 보조금이 아닌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금메달 선수가 나온 협회 중 자립도가 50%를 넘지 않는 곳은 배드민턴협회뿐이다.

국내 스포츠 협회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는 기부금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 등 보조금만으로 협회를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각계의 기부금을 받고, 대회 개최·종계와 스폰서십 등으로 사업 수입을 올린다. 대기업 총수가 협회장을 맡은 종목의 경우 회장 기부금으로 협회 살림 대부분을 충당하기도 한다.

배드민턴협회의 올해 예산을 보면 보조금 수입이 약 120억원, 자체 수입

이 93억원이다. 자체 수입 중 기부금은 없다.

올림픽에 나간 다른 종목 대부분이 기부금을 받아 선수를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대한양궁협회의 재정자립도는 81.41%로,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 중 자립도가 가장 높다. 정의선(현대차그룹 회장) 양궁협회장은 올해 83억원을 기부하며 지난해(66억원)보다 기부액을 늘렸다. 한국사격연맹의 경우 협회 안팎에서 기부금 5억원을 받아 예산을 운용하며 58.14%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대한태권도협회도 올해 기부금은 없지만, 스폰서십 계약과 강습 등 사업 수입이 많아 재정자립도는 56.07% 수준이었다. 대한펜싱협회는 최신원(전 SK

네트웍스 회장) 회장의 기부금 25억원 등을 바탕으로 51.15%의 자립도를 달성했다.

그러나 배드민턴협회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총 40명인데, 수년간 기부금을 유치하지 않았다. 체육계에서는 배드민턴협회의 ‘대규모 임원진’뿐 아니라 아무도 협회에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원진 수만 보면 올해 예산이 1876억원에 이르는 대한축구협회보다도 많다.

지난 2021년 취임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은 엘리트 체육인이 아닌 생활체육인 출신이다. 임원진에는 수산업체 대표, 치과의사 등이 들어가 있다. 2000년대까지 배드민턴협회는 대교 그

룹의 지원을 받았다.

임원진이 기부금을 내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안세영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지원하고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재정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스포츠계의 목소리다. 전용배 단국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많은 협회장이 종목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출연하고 있다”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스폰서십을 늘려 선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의 경우 동호인이 많기 때문에 스폰서십 계약이 여타 종목 대비 큰 편이지만, 협찬 추가 확보를 위한 협회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단연 최고의 신문!! 중양일보

워싱턴 중양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다정한 서재

나의 춤바람 연대기



클로이리 칼럼니스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정성껏 오래 바라본 적이 있는가. 요가든 필라테스든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색한 일이 바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수업 내내 바라보는 것이다. 평소에 수시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나 나의 얼굴과 움직이는 몸을 마주한다는 것은 흡사 낯선 사람과 한 시간 이상 눈 맞추고 있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자기객관화가 지나치게 뛰어나서인지 거울을 보면 유독 못한 부분만 눈에 띈다. 삐뚤어진 어깨가 거슬리고 딱딱한 입매와 화가 난 듯한 표정도 싫다. 무용수들의 바르고 꿈은 자세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 거울마사지라는 말이 있다. 연예인들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점점 예뻐질 때 카메라 마사지 받아서 그렇다는 말을 하듯 거울을 자주 보면 점점 자세와 표정이 수정된다.

박지영 작가의 에세이 <나의 춤바람 연대기>는 춤을 사랑하는 30대 여성의 솔직하고 뜨거운 취미생활이야기다. 시작은 뱃살이었다. 뱃살이 쏙 빠진다는 전단지 문구에 혹해 '오리엔탈 댄스' 학원에 발을 들인 작가는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 꿈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생애 첫 기억은 강렬하고 집요하다. 매일 춤을 추며 뛰어다니던 꼬마, 발레리나가 되겠다고 혼자 연습하며 행복해하던 유년 시절.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작가가 진짜 원하는 삶은 춤추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춤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다. 유년 시절의 스쳐 지나갔던 꿈이 나이 서른이 되도록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는 줄 몰랐다. 꿈을 꺼내 보지도 못하고 포기한 상처는 생각보다 컸다. 그래서 작가는 용기를 내 춤을 배



우기로 결심했다.

어느덧 춤의 세계에 발을 들인 지 10년. 취미로 배우지만 춤에는 진심이다. 더 잘 추기 위해 해부학을 공부하고, 강사 자격증을 따고, 다양한 강연을 들

러 다니고, 공연 무대에 섰다. 어느 순간 취미로 시작한 춤이 본업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자 지치고 말았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할 때'와 '쉬는 때'를 구분하며 삶의 균형을 깨지 말아야 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 덕에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춤을 즐기고 있다. 오리엔탈 댄스를 시작으로 스윙댄스, K-pop, 발레, 현대무용, 최근에는 한국무용을 배우며 여전히 춤 시식 중이다.

박지영 작가에게 춤이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것'이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고, '나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현재의 나의 삶이 가장

치 있고 아름다운 것'임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스승이다.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됐다. 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유추하게 한다. 평소 못된 습관들과 뼈딱한 태도가 쌓이면 몸이 그대로 박제돼 그 사람의 체형이 된다. 편협한 생각이나 성격마저 몸에 굳어진다. 그렇기에 몸선이 반듯하고 걸음이 당당한 사람은 생활도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

작가는 춤을 추면서 이 진리를 깨달았다. 더불어 호흡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작은 움직임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춤을 추겠다고 다짐한다.

살면서 '좋아하는 것'과 '나다운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이제는 기꺼이 나다운 것을 선택하겠다.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늘 좋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나다운 걸 선택했을 때가 장 편하고 자연스럽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 p.78

책을 다 읽고 나서 나는 좀 부끄러워졌다. 진짜 사랑하면 퇴근하고도 달려가고, 주말을 온전히 반납하고, 밤새도록 연습하고, 시간과 열정, 생각과 돈을 아끼지 않게 된다. 나는 과연 그런 열정이 있는가 돌아켜본다. 좋아한다고 말은 하면서 아끼는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는 깍쟁이 같은 진짜 애정을 가진 사람은 아닐까.

몸치민 나조차 이 책을 읽는 동안 마음이 팔랑거리고 엉덩이가 들쭉였다. 누구든 열정에 기쁨을 붓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 유년시절 우리가 꿈꾸던 것, 푸석한 어른이 됐을 때 구원자처럼 찾고 싶었던 그 무엇이 삶의 오아시스처럼 반짝 떠오를지도 모르니 말이다.

우리말 바꾸기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됨을 이르는 말로, 한자 성어로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 쓰기도 한다.

그런데 '귀걸이'는 '귀고리'로 써야 하는 게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을 듯하다. 예전에 표준어 규정이 바뀌기 전엔 '귀고리'가 바른 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걸이'와 '귀고리'가 둘 다 널리 쓰여 모두 표준어로 인정됐다. 따라서 귀에 다는 장식품을 의미할 때는 '귀걸이'와 '귀고리' 중 어떻게 표기할지 고민하지 말고 아무것이나 쓰면 된다. 낱씨가 추울 때 쓰는 귀마개도 '귀걸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귀고리'라고 써선 안 된다.

그렇다면 '코걸이'와 '코고리'는 모두 써도 되는 걸까. '코고리'는 사전에 없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잘 쓰이지 않는다. '코걸이'만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목걸이'는 어떨까. '목걸이'와 '목거리'는 둘 다 써도 되는 낱말일까. '목걸이'와 '목거리'는 모두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다. 그러나 두 표기는 뜻이 다르므로 내용에 따라 잘 골라 써야 한다. 목에 거는 장신구를 말할 때는 '목걸이'가 바른 표기다. 그렇다면 '목거리'는 무슨 뜻일까. 목이 붓고 아픈 병을 '목거리'라 하며, "약을 먹어도 목거리가 잘 낫지 않는다"와 같이 쓸 수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문장으로 읽는 책

활기찬 노년과 빛나는 죽음을 맞으라

나는 지금 그릇을 닦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간다. 크림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비누질할 하지 않아도 되는 곳,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 먹지 않는 곳에서는 그릇도 닦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 나를 위해 절대 애도하지 말라. 나는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으로 가려는 것이다.

헬렌 니어링 엮음 『활기찬 노년과 빛나는 죽음을 맞으라』

나이듦과 죽음에 대한 지혜의 말들을 뽑아 엮은 책이다. 저명한 사상가·문인·명사들의 명언이 많은데, 그중 저 문장에서 눈을 땀 수 없었다. 1860년 '어느 식당 여종업원의 비문'이다. 평생 지독한 노동에 시달렸고 죽어서야 자유로울 수



있었던 한 여성 노동자의 토로가 절절하다.

브레히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충만하지 않은 삶을 두려워하십시오"라고, 몽테뉴는 "나는 힘닿는 한 계속 일하며 살아가고 싶다. 내가 양배추를 심고 있을 때 죽음이 찾아오기를 바란다"([수상록])라고 썼다.

곰핍을 많이 많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죽음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죽어가는 모습은 선택할 수 있다."(사이러스 설즈버거)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에 관해 너무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로버트 허홀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면 아름다운 청춘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의 후손이 자선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가 나인 것은 어제의 내가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엘버트 허버드)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탐감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탐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시청가능 (개인별)
- *최고의 시설 (1인1실)
- *희곡의 동네
- *형질하고 쾌적한 실내
- *INOVA 병원 5분거리
-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꼭꼭 확인해 보세요

문의 703-980-9890

시 설

모처럼의 여야 민생입법 합의, 서로 양보해야 결실 본다

여야가 모처럼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어제 여·야·정 3자 대화회 실무협상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70일 만에 처음 성사된 입법 합의다. 그동안 여야는 고물가와 불벌더위도 아랑곳없이 민생과 무관한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해 왔다. ‘빈손 국회’에의 국민 피로감과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다. 어제 여야 합의도 성난 민심에 떠밀린 결과였다. 만시지탄이나 일단 환영한다. 이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할 길은 단 하나,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다.

여야가 당장 처리키로 한 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정쟁 70일의 빈손 국회” 화난 민심에 여야 등 떠밀려 입법폭주 중단, 영수회담 수용 등으로 협치 이어가길

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과 의료대란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PA)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등이다. 혹서에 시달리는 빈곤층을 위한 전기료 감면에도 공감했다. 그러나 중동발 전염 위기와 요동치는 미국 대선 등 글로벌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시급한 법안은 산적해 있다. 연말이 일몰 시한인 K칩스법과 고준위방폐장법,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법관 증원과 저출산 방지를 위한 육아휴직 확대 법안 등이다.

민주당은 새 국회 70일 동안 특검법을 9건, 탄핵안을 7건 쏟아냈다.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가 목적인 ‘입법 폭거’였다. 문재인 정부

도 입법을 기피했던 노란봉투법까지 밀어붙여 정쟁을 유발했다.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막으려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민주당과 합의 여지가 있었던 연금개혁안을 건너쳤다. ‘용산 지키기’를 민생에 우선했으니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

더 이상의 기대마저 사라졌던 터에 어제 모처럼 싹 틔운 민생 입법 합의가 공염불로 끝나선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8월 임시국회 휴전’을 통크게 수용하라. 한 달 만이라도 정쟁 대신 민생법안만 속도감 있게 통과시키는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다. 8일 협상에서 매듭짓지 못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서둘러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제안한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와 민생만을 의제로 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성과는 없이 정쟁만 증폭시켰던 4·29 영수회담의 재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도 영수회담을 원한다면 거부권이 행사된 쟁점 법안들의 재의결을 시도하는 폭주를 멈추고 ‘2 특검 4 국정조사’ 같은 정쟁 사안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시각 차이가 적은 공통분모 정책부터 오프차순으로 차근차근 합의해 나가는 게 최선의 해법일 것이다. 더 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기 정파의 이익을 양보하는 쪽이 결국 더 큰 승리를 얻는 게 정치다.

주택 공급 총력전 나선 정부, 정책 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집값 불안은 잠재우기 위해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건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가 그린벨트다. 그린벨트가 가장 넓은 서초구를 비롯해 택지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강남권에 신규 택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0주째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쭉이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주택용지를 늘려 2만 가구 이상을 더 공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조환)의 폐지와 함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추가 허용,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있다.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면 나중에 미분양돼도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주기로 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매입 임대 물량을 대폭 늘

린다. 8·8대책은 이제까지 시장과 전문가가 지적해 온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규 택지 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은 통상 8~10년이 걸리는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중장기 공급 대책이다. 급하지 않은 실수요자에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시그널은 줄 수 있지만, 당장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등의 상대적 단기 대책으로 도심 아파트를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재조환 폐지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위해선 정부가 국회에서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한다. 동시에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가 생길 수 없고 시장 불안도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제 말한 것처럼, 국민이 원할 때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과 민심을 잘 살피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부동산 정치’를 위해 시장의 힘을 무시했던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집값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자동거부권’이라도 도입하자

김정하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프로야구에 자동고의사구(automatic intentional walk)라는 룰이 있다. 과거엔 투수가 타자를 거르고 1루에 보내려면 실제로 공을 네 번 던져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그아웃에서 수비 측 감독이 심판에게 고의사구 의사만 전달하면 투수가 공을 안 던지고 타자를 내보낸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2017년부터, 한국·일본 프로야구는 2018년부터 도입한 이 룰의 취지는 경기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해 박진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투수가 거르기로 마음먹었으면 결말이 정해져 있는 셈인데 아무 의미도 없는 투구를 네 번이나 할 필요가 없다. 관중도 지루하다. 전통을 중시하는 측에선 2013년 존플레이오프 2차전 두산 흥삼의 전설적 폭투나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 결승전 김재박의 ‘개구리 번트’처럼 고의사구 때도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룰 도입에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거의 사라졌다. 막상 도입해 보니 단점보단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요즘 한국 정치엔 자동거부권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현 국회 상황은 이렇다. ①민주당이 논쟁적 법안을 본회의 상정→②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③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제출해 24시간 뒤 강제 종결→④민주당 본회의의 단독 표결→⑤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⑥국회 재의결(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실패→다시 ①부터 되풀이. 이른바 ‘바보들의 행진’으로 불리는 정쟁의 무한 루프에 갇혀 있다. 어차피 노란봉투법·방송 4법 등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예정된 결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야구처럼 국회도 ①에서 곧바로 ⑥으로 가면 어떨까. 즉 국회 본회의에 문제의 법안이 올라오면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의사를 통지한다. 그러면 그 법안은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하는 즉시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생상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의원들은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로 시간·체력 낭비를 할 필요가 없으며, 깔끔하게 표결만 하면 되니 소모적 충돌과 악다구니도 줄어든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야당이 논쟁적 법안을 강행 처리했을 때 야당 집권 시 해당 법안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조건부 거부권’ 제도는 어떨까. 가령 민주당이 지난 5월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법안이다. 그때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이었고 집권당이었던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가 “법률 원칙을 흐르는 조항이 많다”고 제동을 거는 바람에 단념한 법안이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자

거부 절차 간소화로 국회 효율 증대 소모적 충돌, 악다구니도 줄어든 것 억지 법안 집권 시 자동 발효되면?

동으로 노란봉투법이 발효되도록 하겠다”며 조건부 거부권을 선언할 수 있을까. 민주당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무모한 입법을 함부로 추진할 수 있을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관리법도 마찬가지다.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초과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 사과관리법·감자관리법은 왜 안 만드나. 이 법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됐지만, 정부가 “쌀의 공급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대해 불발됐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골탕 먹이기 위한 용도로 양국관리법을 밀어붙이지만 만약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해당 법안이 자동 시행된다고 해 보라. 민주당에서도 경제를 아는 의원이라면 분명히 입법을 망설일 것이다. 아마 자동거부권이나 조건부 거부권은 위한 시비에 휘말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요즘 국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런 비상수단이라도 강구해야 한다는 한탄이 저절로 나온다. 이 어리석은 ‘바보들의 행진’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자재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재판·제1차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NHK NEWS,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MARKET

INTERNATIONAL FOOD

4239 John Marr Dr. Annandale, VA 22003
www.kmarketusa.com | 703-712-7089

WEEKLY SALE: 8/9-8/15/2024

세일 품목은 조기에 품절 될 수도 있습니다.
DISCOUNT PRODUCTS MAY SELL OUT EARLY.

PRODUCE

한국 참외 KOREAN MELON 3 DAYS ONLY (금,토,일) 17.99 BOX	체리 CHERRY 3 DAYS ONLY (금,토,일) 2.49 LB	코튼 캔디 포도 COTTON CANDY 3 DAYS ONLY (금,토,일) 2.99 EA	미니 오이 MINI CUCUMBER TRAY 3 DAYS ONLY (금,토,일) 1.29 EA
잭푸르크 JACK FRUIT 3 DAYS ONLY (금,토,일) 0.99 LB	흰양배추 WHITE CABBAGE 3 DAYS ONLY (금,토,일) 0.79 LB	옐로우 드라곤 YELLOW DRAGON 3 DAYS ONLY (금,토,일) 2.49 LB	롱안 LONGAN 3 DAYS ONLY (금,토,일) 3.49 LB
한국 오이 KOREAN CUCUMBER 3 DAYS ONLY (금,토,일) 1.79 LB	새송이버섯 KING OYSTER MUSHROOM 3 DAYS ONLY (금,토,일) 2.99 LB	라즈베리 RASPBERRY 3 DAYS ONLY (금,토,일) 1.99 EA	한국 고추 KOREAN PEPPER 3 DAYS ONLY (금,토,일) 1.99 LB
로메인 ROMAIN HEART 3 DAYS ONLY (금,토,일) 1.99 EA	리치 LYCHEE 3 DAYS ONLY (금,토,일) 2.99 LB	셀러리 CELERY HEART 3 DAYS ONLY (금,토,일) 1.99 EA	간마늘(5LB) PEELED GARLIC 3 DAYS ONLY (금,토,일) 13.99 EA
파 GREEN ONION 3 DAYS ONLY (금,토,일) 5/1.99 BUNCH LIMIT 10 BUNCH	팽이버섯 ENOKI MUSHROOM 3 DAYS ONLY (금,토,일) 1.99 150G/EA	청상추 GREEN LEAF 3 DAYS ONLY (금,토,일) 0.99 EA	

SEAFOOD

냉동 오징어 FZ SQUID 3.99 2.99 LB	가제미 SOLE FISH FRESH 4.99 2.99 LB	통연어 SALMON FRESH 6.99 5.99 LB	자갈치 품장어 HAG FISH FZ 11.99 9.99 EA	손질된 꽃게 CLEANED CRAB 11.99 9.99 EA
--	---	--	---	---

MEAT

양지 우삼겹 샤브샤브 FZ BEEF SH PLATE SHABU 20.99 10.99 LB	장조림 홍두개살 BEEF EYE ROUND JANGJORIM FRESH 10.99 8.99 LB	생삼겹살 패밀리팩 BBQ PORK BELLY SLICE/FAMILY FRESH 9.99 5.79 LB	뼈있는 수육삼겹 PORK B/1 BELLY CHUNK FRESH 6.99 5.49 LB	돼지목살 불고기 패밀리팩 FZ PORK BULGOGI/FAMILY PACK FRESH 6.99 3.79 LB	닭다리 패밀리팩 CHICKEN DRUMSTICK/FAMILY PACK FRESH 7.09 0.89 LB
---	--	---	---	---	--

GROCERY

세카 쌀 SEKKA RICE 40LBS 32.99 29.99 EA	CJ 햇반 COOKED WHITE RICE 6PK 10.99 8.99 EA	KAGAYAKI BROWN RICE 가가야끼 흰미 4.4LBS 12.99 9.99 EA	농심 짜파게티 멀티 CHAPAGETTI SHIRAMEN 멀티 SHIN RAMEN 4PK 5.99 3.99 EA	CJ 해찬들 진한맛 고추장+쌈장 GOCHUJANG+SSAMJANG 1KG/170G 8.49 5.99 EA	샘표 국, 제개용 맛간장 SEASONED SOY SAUCE FOR SOUP 1.7L 12.99 6.99 EA	잇츠웰 요리전용 매향 BOHAE COOKING WINE 1.8L 7.99 5.99 EA
롯데 초코파이 CHOCO PIE CHOCO PIE GREEN TEA 초코파이 밀크티 CHOCO PIE MILK TEA 초코파이 바나나 CHOCO PIE BANANA 초코파이 카카오 CHOCO PIE CACAO 12PK 4.99 3.49 EA	동원 자연산 콩치 CANNED MACKEREL PIKE 자연산 고등어 CANNED MACKEREL 400G 5.99 4.99 EA	소문난 광천 온천지 곱창김 16봉 SEASONED LAVER 16PK 8.99 5.99 EA	소문난 광천 온천지 재래김 16봉 SEASONED LAVER 16PK 8.99 4.99 EA	초림동이 순생선살 중합어묵 ASSORTED FRIED FISH BALL 500G 5.99 4.49 EA	테리맥주 TERRA BEER 12CANS 21.99 16.99 EA	
오뚜기 옛날미역 DRIED SEAWEED 150G 10.99 6.99 EA	오리온 커스타드 케익 CUSTARD CAKE 12PK 5.99 4.99 EA	수라상 쌀 선과 RICE SENBEI 쌀선병 SYRUP COATER RICE SENBEI 300G 4.99 4.49 EA	롯데 밀키스 (사과, 멜론, 바나나, 오리지널, 오리지널 저칼로리, 복숭아) APPLE, MELON, BANANA, ORIGINAL, LOW CALORIE, PEACH) 6CANS 6.99 4.99 EA	빙그레 싸만코 SAMANCO RED BEAN 싸만코 초코렛 SAMANCO CHOCOLATE 싸만코 딸기 SAMANCO STRAWBERRY 싸만코 그린티 SAMANCO GREEN TEA 7.49 4.99 EA		

HOUSEWARES

스텐레스 2단 도시락 TWO LAYERS S/S LUNCH BOX 15.99 9.99 EA	스텐레스 3단 도시락 (사각, 원형) THREE LAYERS S/S LUNCH BOX 19.99 14.99 EA	면 앞치마 COTTON APRON 14.99 9.99 EA	갈대 빗자루 REED BROOM 5.99 3.99 EA	만능 다지기 SPIN SLICER 9.99 6.99 EA	제일 핫, 쿨 파스 JEIL HOT & COOL PAP 3for 10.99 6.99 EA
--	---	--	--	---	---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 and description.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LA 관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week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Friday, August 9,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이번 주말 LA 근교 나들이 가볼까

올드타운 오렌지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일상의 큰 활력소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난다. 그렇다고 굳이 멀리까지 여행을 갈 필요는 없다. 날씨 좋은 주말 아침, 가까운 곳에서 산책도 하고 쇼핑과 맛집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썩 유쾌해지니까 말이다. LA에서 30마일가량 떨어진 오렌지카운티 소재 올드타운 오렌지(Old Towne Orange)는 바로 그런 주말 한나절 혹은 반나절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물하며 놀까**
아침 일찍 이곳에 도착했다면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사들고 올드타운 중심에 위치한 하트 파크(Hart Park)에서 산책을 즐기는 걸로 일정을 시작해보자. 이 공원은 넓은 녹지와 테니스 코트, 야구장,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 좋다. 또 주말이면 라이브 음악 공연과 지역 축제들로 활기가 넘친다.

토요일에 방문했다면 파머스 마켓을 구경하는 재미도 놓치지 말자. 신선한 로컬 농산물과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파머스마켓은 구경하고 맛보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 이후 한낮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더위를 피해 힐버트 뮤지엄(Hilbert Museum of California Art)을 방문해보자. 이곳은 지역 예술의 중심지로 현대 예술부터 캘리포니아 풍경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오픈 시간은 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료는 무료이나 웹사이트에서 사전 예약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올드타운 오렌지는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아기자기한 앤티크 가게, 맛집들로 주말 한나절을 보내기 좋은 가족 나들이 코스다.



올드타운 오렌지의 명소인 앤티크 가게 앞에 쇼핑객들이 몰려 있다.



올드타운 유명 맛집인 '가비스 멕시칸 키친'의 인기메뉴인 타코 플레이트.
[Gabi's 인스타그램 캡처]

8월 마지막 주말에 열리는 인터내셔널 길거리 축제(Orange International Street Fair)는 올드타운 오렌지가 자랑하는 최대 축제다. 축제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데 올해는 8월 30일~9월 1일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전통 음악과 댄스 공연도 준비돼 있어 가족단위로 즐기기에 그만이다.

▶**쇼핑**
올드타운 오렌지는 앤티크 애호가들의 파라다이스이며 성지다. 고풍스러운 건축물에 입점한 빈티지와 앤티크를 판매하는 전문상점은 꼭 무엇을 사지 않더라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눈호강할 수 있다. 특히 1만5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오렌지 서클 앤티몰(Orange Circle Antique Mall)에는 50여곳의 앤티크 전문점들이 입점해 있는데 이곳에선 다양

한 앤티크 가구, 장신구, 장식품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글=이주현 객원기자
사진=애너하임 관광청 제공
▶ 3면 '올드타운 오렌지'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강력한 전직검사
대형교통사고 전문
국제로펌출신
부동산 매매 전문
최고의 상법 변호사
크리스티나 신(손) Christine E. Shin(Sohn)
cshin@rowepllc.com
상법전문
인터네셔널 국제상법 / 재산증식
투자컨설팅 / 재용자 / 영의변경 / 리스협상
부동산 세들먼트 / 비즈니스 설립
전 여성경제인 협회 회장 역임
현 세계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교통사고 민사·형사 변호사
노승훈 Robinson S. Rowe
rrowe@rowepllc.com

소송전문
교통사고 / 민사소송
형사소송 / 마약
심각한 음주 운전 / 절도 / 폭행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pflores@rowepllc.com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rcadle@rowepllc.com

MD 301.770.4710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VA 703.354.1111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한국인 전문 상담 Mrs. Lee 사무장
VA 703.887.1037
klee@rowepllc.com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 와이스틴 & 손 로펌
Attorneys and Counselors at Law
www.rowepllc.com

청라 언덕이 키운 예술 자부심, 한국전쟁 때 꺾여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흰 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 박태준 작곡, 이은상 작사의 ‘동무 생각’. 많은 한국인이 기억하는 가곡일 것이다. 이 노래에 등장하는 ‘청라 언덕’은 대구 중구에 있다. 원래 이름은 달성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산’이었다. 그런데 개화기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언덕에 주택을 지으면서 서양 담쟁이를 심었다. 붉은 벽돌을 타고 올라가는 푸른 담쟁이, 즉 ‘청라(靑蘿)’를 처음 본 대구 사람들은 이 신기한 식물이 담장을 뒤덮은 동네를 청라 언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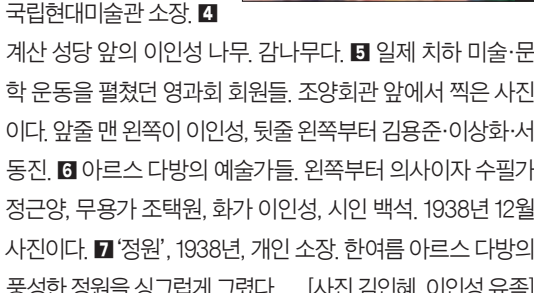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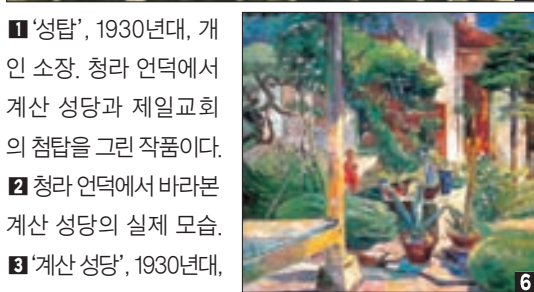
‘동무 생각’은 대구 출신의 작곡가 박태준(1901~1986)의 첫사랑 기억을 담은 노래다. 박태준은 청라 언덕 아래 옛 제일교회에서 서양음악을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아 음악가의 길에 들어섰다. 그의 시대는 근대화의 물결이 넘쳤고,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화가 이인성도 그와 비슷한 세대로, 서로 매우 친했다. 동요작가 윤복진과 더불어 가요곡집 ‘물새 발자욱’(1939)을 만든 적도 있다. 작곡 박태준, 작사 윤복진, 표지그림 이인성. 이들은 모두 1920~30년대 대구 문예계의 촉망받는 신예들이었다.

화면 구성 대담하게 요리하듯

이인성도 청라 언덕에서 그림을 그렸다. 1930년대 제작된 ‘성탑’이라는 작품이다. 그는 나지막한 언덕 위에 올라서 대구 계산 성당을 내려다보며 그렸다. 성당의 정면부 전체를 반듯하게 화폭에 담기 위해서, 화가는 언덕에 올라가야 했을 것이다. 작품을 보면, 계산 성당 첨탑 뒤로 또 하나의 은색 첨탑이 겹쳐 있는데, 이것이 박태준을 처음 서양음악으로 인도했다는 그 제일교회의 첨탑이다.

실제로 이 작품을 그렸을 장소를 찾아 청라 언덕에 올라가 봤다. 그림을 그린 위치와 성당이 생각보다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인성은 깊은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의 오른쪽에 근경의 나뭇가지를 배치했다. 마치 세잔이 생 빅투아르 산을 그릴 때, 근경에 나무를 배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이다. 바로 눈앞의 나뭇가지를 화면에 일부러 집어넣음으로써, 저 멀리 위치한 계산 성당과 그 너머 공간까지 깊이 있는 공간감을 확보했다. 화면 아래 성당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유난히 작은 것도 거리감을 확실하게 드러낸 방식이다. 화면 구성을 대담하게 요리하듯 주무르는 능력이 이인성에게는 있었다. 또한, 이인성의 작품에는 ‘느낌’이란 게 있다. 노래 ‘동무 생각’에서와 같은 풍부한 감수성이 묻어 있다. ‘성탑’은 양산한 나뭇가지에 눈마저 내린 듯, 겨울의 차갑고 습윤한 공기를 머금었다. 뭔가 쓸쓸한 느낌이 사무치는 작품이다.

계산 성당은 1902년 대구에 처음 생긴 서양식 건축물. 당시 대구에는 벽돌집을 만드는 기술자가 없어서 건축을 맡은 프랑스 신부가 중국인 벽돌공을 데리고 와서 지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대구에서 가장 압도적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지녔을 이 성당을 이인성은 여러 번 그렸다. 그의 화실이 바로 근



처 남산병원 3층에 있었기 때문에, 화실 밖으로 내다보이는 계산 성당의 옆모습을 그린 작품(‘계산 성당’)도 남아 있다. 기와지붕을 너머에 붉게 빛나는 벽돌 건물. 그 사이로 나무 한 그루가 앙상하게 서 있는데, 현재 계산 성당 앞의 감나무를 이 그림 속 나무라고 해서 ‘이인성 나무’라 이름 붙여 놓았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인성의 작품을 기억하려는 대구 시민의 노력이 반가웠다.

1 ‘성탑’, 1930년대, 개인 소장. 청라 언덕에서 계산 성당과 제일교회의 첨탑을 그린 작품이다. 2 청라 언덕에서 바라본 계산 성당의 실제 모습. 3 ‘계산 성당’, 1930년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4 계산 성당 앞의 이인성 나무. 감나무다. 5 일제 치하 미술 문학 운동을 펼쳤던 영과회 회원들. 조양회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앞줄 맨 왼쪽이 이인성. 뒷줄 왼쪽부터 김용준·이상화·서동진. 6 아리스 다방의 예술가들. 왼쪽부터 의사이자 수필가 정근양, 무용가 조택원, 화가 이인성, 시인 백석. 1938년 12월 사진이다. 7 ‘정원’, 1938년, 개인 소장. 한여름 아리스 다방의 풍성한 정원을 싱그럽게 그렸다. (사진 김인혜, 이인성 유족)

온 대구가 나서 예술 인재 키우기
우리 땅 향수 강한 화풍으로 결실

청라 언덕서 그린 계산 성당 ‘성탑’
가곡 ‘동무 생각’의 감수성 묻어나

일본서 돌아와 차린 다방 아리스
백석 등과 어울렸던 예술 아지트

국채보상운동 토양서 성장

이인성은 대구가 낳은 화가였다. 20세기 대구에는 실로 훌륭한 예술가가 많이 나왔지만, 이인성은 특히 대구라는 토양이 없었다면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1912년 대구 중구 서성로(당시 지명은 북내정 16)에서 태어났다. 가정 형편상 화가를 꿈꿀 수 없는 처지였지만, 대구 어른들이 나서서 그의 성장을 도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에 비상한 재주를 보인 이인성을 길거리 캐스팅한 사람이 스승 서동진이었다. 서동진은 초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웠던 이인성을 자신이 운영한 인쇄소 대구미술사에 취직시켜서, 숙식을 제공하며 일과 미술 공부를 병행하게 했다. 이인성의 일본 유학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서동진의 스승으로는 이상정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인 이상화의 형으로, 대단한 독립운동가이자, 대구에 최초로 서양화 화구를 도입했던 화가였다. 한편, 이상정과 이상화 형제는 일찍 부친을 여의고 큰아버지 이일우의 영향 아래 자랐는데, 이일우는 개화기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학교 우현서루(후에 교남학교로 발전)를 처음 설립한 인물. 국채보상운동의 주동자 중 하나였다. 알다시피 국채보상운동은 나라빛을 온 국민의 성금으로 갚겠다고 나선 일로, 1907년 대구에서 처음 촉발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이인성으로 말하자면, 이일우-이상정-이상화-서동진의 계보를 이었던 것. 그는 대구의 지사(志士)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다.

1927년 대구의 문예계 인사들이 ‘영과회’라는 단체를 결성했는데, 기념사진에 어린 이인성과 서동진·이상화 등이 함께 등장한다. 사진의 배경이 된 건물은, 대구의 또 다른 독립운동가 서상일이 사비를 털어 만든 조양회관. 이곳에서 이들은 1920년대부터 전시회를 열고, 대중 강연을 펼치며, 식민지 시대에도 미술과 문학을 통해 우리 정신을 지키고 고양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인성의

작품을 보면, 잃어버린 우리 땅에 대한 자부심과 향수가 늘 강하게 묻어나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인성의 민족주의적 태도는 대구라는 토양에서 뿌리내리고 자란 결과였다.

이들의 자취가 대구 중구 여기저기 남아 있는 점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이일우의 우현서루는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자리에 있고, 이상정 고택은 계산 성당 바로 근처에 현재 ‘바보 주막’이라는 밥집으로 변해있다. 이상화 고택은 바보 주막에서 몇 걸음만 걸으면 나온다. 가옥과 마당이 어느 정도 원형 보존되고 있다. 이상화 고택 맞은편에는 국채보상운동의 발기인 서상돈의 고택이다. 서동진의 집과 그가 운영했던 대구미술사 자리도 거기에서 멀지 않다. ‘올드 대구’가 크지 않다 보니, 모두가 서로 지척이다. 이인성은 또래 예술가들과 어울려, 이상화의 집을 비롯해 이집 저집 동네 어른들 댁을 찾아다니기를 즐겼다고 한다. 대구 중구는 현재 이 일대에 골목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치안대원 잘못 쓴 총에 숨겨

이인성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한창 잘 나갈 때, 그는 의사였던 장인이 마련해 준 화실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작품을 제작했다. 그리고 1937년 처가에 서 분가해 대구 중구 남일동(당시 지명 남정 76)에 다방 ‘아리스(ARS)’를 열었다. 라틴어로 ‘예술(ART)’을 의미하는 이름. 당시 다방은 음악 감상실이어서 도서실, 갤러리였고, 이인성의 표현대로 “예술의 전당”이었다. 이인성이 직접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다방 벽에는, 그의 작품 ‘한정’이 걸려 있었다. 다방 내부 사진을 보면, 프랑스에서 갖 귀국한 무용가 조택원이 시인 백석과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아리스가 실제로 예술가의 아지트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

현재 옛 제일교회 건물 맞은편에 아리스를 재현한 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라 한다. 대구 중구청이 유족의 도움을 받아 올해 말 개관을 목표로 한창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인성이 해방 후 서울로 올라가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6·25 전쟁 중 비명횡사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1950년 11월, 전쟁 중 치안대원이 잘못 총에 맞아 죽았다. 향년 38세. 이인성은 그냥 이인성이 아니다. 나라를 일으킬 인재 키우겠다는 대구의 열렬한 교육열 속에서, 여러 지사들, 유지들, 장인어른의 도움과 희생을 등에 업고, 겨우 피어난 한 필기 꽃이었다. 그런 소중한 꽃을 피우기는 어려운데, 꺾기는 참 쉽다. 우리 역사에는 그런 인물이 또 얼마나 많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대구의 쟁쟁한 여름과 싸우듯 골목을 걸었다.

김인혜 미술사가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8월 HOT 리스팅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비엔나 타운홈
방3+와3+차고2
2001년, 2100sf
켈로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로로 5분거리

\$97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와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와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와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와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와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길거리 토스트, 커피 플리즈” (한국식) 핫한 LA카페션 이렇게 시킨다

지난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 발표에서 박정현 셰프와 박정은 최고경영자 부부가 운영하는 뉴욕의 모던 코리안 레스토랑 ‘아토믹스’가 세계 6위에 올랐다. 10개의 코스 요리가 제공되는 이곳의 식사비는 팁을 포함해 1인당 70만원이지만 예약은 하늘에 별 따기다. 지난해 뉴욕 미쉐린 가이드에서 스타를 받은 식당 71곳 중 11곳이 한국 식당이다. 그만큼 미국 뉴욕에서 K푸드의 인기는 최고다.

“스타벅스-블루보틀 인기가 K카페로”

한편 ‘BCD(북창동)순두부’ 등 전통의 노포들이 많은 LA에선 뉴욕만큼 화려하진 않아도 K푸드 확산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베이커리&브런치 카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반짝인다. 20년째 LA에 거주하며 한국을 오가고 있는 김진형 갤러리 큐레이터는 “스타벅스에서 블루 보틀로 젊은 친구들의 관심이 옮겨가더니 요즘은 ‘카펠커피’ 같은 한국의 카페 브랜드들이 직접 들어오거나, 한국의 상징적인 맛을 응용한 카테일형 커피를 파는 곳들이 눈에 띈다”고 했다. 김 큐레이터가 “LA에 거주하는 20대 조카들과 그 친구들이 꼽은 핫한 곳”이라며 알려준 대표적인 장소는 ‘스모킹 타이거’.

6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조노아(30)씨를 중심으로 젊고 야심찬 10여 명의 스태프가 함께하는 이곳은 흑임자·유자·썩·미숫가루·제주말차 등 전통적인 식재료를 한국에서 공수해 빵과 과자, 커피와 음료를 만든다. 상호명 ‘스모킹 타이거 (Smoking Tiger)’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의미. 노아씨는 “어려서 이민 온 이들의 향수를 달래주는 것도 목표지만, 무엇보다 K컬처에 관심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에는 비빔밥·한복 같은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K팝·K인테리어처럼 젊고 힙한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한국인 누구에게나 추억이 많은 바나나우유·딸기우유·초당옥수수 등과 에스프레소를 섞어 음료를 만들고, 한국에서 공수한 소품·가구들로 인테리어를 꾸미고, 매장에서 한영

애의 ‘누구 없소’나 듀스의 ‘여름 안에서’를 비롯해 아이돌 그룹의 최신곡을 트는 이유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뉴트로(새로움과 복고의 합성어)’의 LA 버전이다.

이곳에선 한글 그래픽 포스터와 포장지를 사용하고 SNS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글을 노출시킨다. 상호명이 한글로 적힌 효자손·티셔츠·텀블러·트레이 등의 굿즈도 인기다. 2019년 하반기에 문을 연 ‘스모킹 타이거’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6개의 매장이 있고, 올해 안에 다른 주에도 문을 열 계획이다.

브런치 카페에서 커피 또는 음료와 함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메뉴로 한식이 인기인 것도 흥미롭다. 요즘 LA의 20대 사이에서 핫한 카페 ‘모던 트 룩’과 카페 베이커리&레스토랑 ‘리퍼블릭’의 인기 메뉴는 김치볶음밥이다. 심지어 ‘리퍼블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프랜차 레스토랑인데 최고 인기 메뉴가 ‘소고기를 넣은 김치볶음밥 (Kimchi Fried Rice with Beef Short Rib)’이다. 가격은 22달러(약 3만원).

카페 ‘플라워링 트리’의 인기 메뉴는 ‘KSF 샌드위치(15달러·약 2만5000원)’다. 채 썬 양배추와 달걀부침, 치즈, 케첩·마요네즈 소스를 듬뿍 얹고 설렁탕까지 뿌린 것이 딱 한국의 길거리 토스트다. KSF는 Korean Street Fighter의 약자. 김성운 사장은 “파이터처럼 치열하게 사는 한국인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카페 뷰로 할리우드(HOLLYWOOD) 사인을 볼 수 있어서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손님이 정말 많은데 그들에게 KSF 뜻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직장인들이 출퇴근길에 즐겨 먹는 음식인데 간편하면서도 영양소는 골고루 들어 있어 따뜻한 한 끼가 된다’고 설명하면 정말 흥미로워 한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유튜브에서 길거리 토스트를 본 손님들이 많아서 ‘완전 똑같다’ ‘빵을 컵에 담아주는 곳도 있다’ 등등 대화 주제가 자연스레 K컬처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김성운 사장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한창 화제일 때는 ‘달고나 라떼’와 ‘달고나 셰이크’를 메뉴로 만들기도 했다”며 “외국인의 입맛



1 ‘플라워링 트리’ 카페의 KSF 샌드위치. 2 ‘보릿고개’의 보리밥정식. 3 BBQ 전문 식당 ‘M코리아’의 육회 물회. 4, 5 ‘스모킹 타이거’가 개발한 제주 딸기말차 라떼와 브랜드 홍보 포스터. 6 프랜차 카페 ‘리퍼블릭’에서 요즘 핫한 메뉴는 김치볶음밥이다.

서정민 기자, [사진 각 카페·식당]

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불고기 파니니를 만드는 등 한식을 접목한 메뉴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데 매번 반응이 좋다”고 했다.

한식당 ‘보릿고개’는 주말 웨이팅 필수

노포 스타일의 한식당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형제갈비’ ‘춘천닭갈비/동해막국수’ 등의 한식당을 35년간 운영해 온 정성희 셰프와 주부권 대표 부부는 올해 남도 밥상을 테마로 한식당 ‘보릿고개’를 열었다. ‘보리밥 정식(29,99달러·약 4만1000원)’이 대표 메뉴인데 농번기 새참처럼 대나무 채반에 10여 종이 넘는 나물 반찬과 강된장을 담고 가자미식해·우렁 초무침·들깨 백숙·청국장 등의 반찬을 함께 제공

한다. 전체 음식으로는 김부각, 디저트로는 꽃감말이와 팔죽이 나온다. 주대표는 “한국인에게는 추억의 시골밥상으로, 외국인에게는 건강밥상으로 입소문 나면서 주말이면 1시간씩 줄을 선다”며 “요즘은 한국인보다 외국인 손님이 더 많다”고 했다. 돼지고기 삼겹살, 쇠고기 차돌박이 등 코리안 BBQ를 주 메뉴로 하는 ‘M코리아’ 식당에선 생선회 대신 육회를 넣은 물회를 메뉴로 개발했는데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국물과 식감 때문에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다.

LA=서정민 기자

▶1면 ‘올드타운 오렌지’에서 이어집니다

패션에 관심많은 이들이라면 엘스웨어 빈티지(Elsewhere Vintage)나 조이라이드 빈티지(Joyride Vintage)를 방문하면 1920년대부터 1980년대의 독특한 빈티지 의류를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티크와 서점, 기념품 가게들이 골목골목 숨어 있어 마치 보물창고를 하는 듯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맛집

올드타운 오렌지 중심부인 오렌지 서클(Orange Circle) 주변은 맛집 천국이다. 이 중 대표 식당은 미술 랩 빙구르망 어워드를 수상한 가비 패트릭이 운영하는 가비스 멕시칸 키친(Gabbi's Mexican Kitchen)이다. 전통 멕시칸 퀴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타코. 비프(Puebla), 치킨(Carnitas), 새우(Camarones) 등 다양한 타코를 맛볼 수 있다. 타코에 곁들여진 하

우스 살사와 구아카몰, 피카테가오가 이국적인 풍미를 더한다. 새우, 시금치, 치즈를 재료로 한 새우 엔칠라다(Enchiladas de Camarones)도 인기다. 쌀밥과 검은콩, 치즈 프레스코가 곁들여져 제공된다.

이탈리안 요리 애호가라면 프랑콜리 고메(Francoli Gourmet)에서 식사를 고려해 보길. 이곳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정통 이탈리안 퀴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식당이다. 신선한 조개와 화이트와인을 주재

료로 한 봉골레 파스타와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식재료를 이용해 북부 이탈리아의 전통 방식으로 요리한 라자냐(Lasagna Alla Piemontese)가 인기 메뉴다. 그리고 후식으로 마스카포네 치즈와 커피, 카카오의 환상적인 조합이 일품인 티라미수도 잊지 말고 맛보자.

칵테일 한 잔 곁들인 간단한 식사를 하고 싶다면 헤븐 크래프트 키친(Haven Craft Kitchen + Bar)을 고려할 만하다. 신선한 로컬 식재료를 이용

한 모던 퀴진을 표방하는 이곳은 특히 수제 카테일이 유명하다. 시그니처 메뉴는 덕 치라퀼레스(Duck Confit)와 육즙 가득한 패티로 만든 수제 버거. 특히 덕 치라퀼레스는 48시간 동안 저온 조리한 다진 오리고기로 만들어 깊은 풍미를 맛볼 수 있다. 여기에 크래프트 칵테일 또는 수제 맥주, 와인 등을 곁들이면 훌륭한 한끼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오픈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이주현 객원기자

Hot 여름, Cool 세일!

빌페이지 토요타

매일 [달러 스페셜] 할인차량이 업데이트 됩니다. 지금 문의 주세요!

New 2025 캠리 혁신적인 연비, 새로운 스타일 지금 확인하세요!

다양한 할인보장

스페셜 이자

150대 이상의 중고차 보유

프랜차이즈 대상 수상

"문제 없습니다!"

- 크레딧 문제 있으신 분
- Bankruptcy 하신 분
- Foreclosure 하신 분
-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

도요타 Certified Used Vehicles (보증 중고차) 특선

Certified Used Vehicles

코롤라크로스



랩도



벤자



하이랜더



포러너



랜드크루저



[중고차 특선 세일]

페이지 토요타에서 다양한 중고차를 만나보세요! [다량의 중고차 보유]

*원하시는 예산과 스타일의 중고차를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찾아 드립니다!

 2010 Toyota Prius III Sale Price \$7,695 Mileage: 133,049 Stock#: 83071A	 2011 Honda CR-V SE Sale Price \$83,305 Mileage: 151,268 Stock#: 82969A	 2015 Kia Rio LX Sale Price \$8,895 Mileage: 83,232 Stock#: 84025A	 2012 BMW 328i xDrive Sale Price \$9,200 Mileage: 100,729 Stock#: P7538B	 2012 Toyota Prius II Sale Price \$10,594 Mileage: 104,764 Stock#: 84019A	 2016 Toyota RAV4 XLE FWD Sale Price \$15,695 Mileage: 119,260 Stock#: P7831	 2016 Toyota Corolla LE Sale Price \$17,121 Mileage: 39,471 Stock#: P7881	 2020 Toyota Corolla LE Sale Price \$17,200 Mileage: 72,806 Stock#: P7893	 2021 Toyota Camry Hybrid LE Sale Price \$22,965 Mileage: 65,994 Stock#: P7766	 2015 Toyota Tacoma 4x4 Access Cab V6 Sale Price \$26,349 Mileage: 48,372 Stock#: P7845
--	--	---	---	---	---	--	--	---	--

Uber | Lyft

우버/리프트 운영자분 도와 드립니다!
\$750 리베이트 (달러에 문의 주세요)

택스 아이디어도 낮은 이자율에 차량 구입 가능합니다.

높은 이자율로 고민하시거나 페이먼트 부담으로 차량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을 빌페이지 토요타가 도와드립니다!

"빌페이지 토요타 스페셜 프로그램" 지금 확인하세요!

"빌페이지 토요타 한인팀이 항상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한인세일즈 매니징팀

김 광수
301.401.8685

제네랄 매니저 **자니 김**
세일즈 매니저 **순 박**
파이낸스 디렉터 **잔 조**

Bill Page TOYOTA

703.532.8800

2923 Annandale Rd.,
Falls Church, VA 22042

Sales Hours M-F 9am ~ 9pm
Sat 9am ~ 8pm / Sun 11am ~ 6pm

www.billpagetoyota.com



해질녘 우도 해변 섬은 '섬'이 된다



관광객 북적대는 낮에 왜 가는가
우도 진면목은 밤바다에 묻어나
전복·성게 바닷것 그득한 해녀 섬
식당들도 저녁 손님 더 대접해줘



1 한낮의 우도는 관광객으로 가득하지만, 한낮만 피하면 우도는 조용해진다. 이른 아침 홍조단과 해변에서, 2 우도봉에서 내려다본 우도. 오른쪽 끝이 비양도다. 제주올레 1-1코스가 지나간다.

섬을 드나들다 깨달은 게 있다. 섬 바다는 섬사람의 것이지만, 섬의 이름은 섬사람 바깥의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 제주도 동쪽 섬 우도(牛島)가 그러하다. 이름을 풀면 '소섬'인데, 우도에서 소를 풀어 키웠다는 기록은 없다. 우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주도 동쪽 해안에 서면 알 수 있다. 바다 건너 섬이 영락없이 소가 누워 있는 꼴이다. 지방 우도가 제 이름 같다. 밀려드는 관광객과 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장사치가 섬 주민 행세를 한다.



'섬 속의 섬' 우도, 해마다 150만명 찾아
우도는 현재 가장 뜨거운 제주도 관광지다. 2012년 연 100만 명을 넘어선 우도 방문객은 2010년대 중반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풀 꺾였지만, 우도는 여전히 만원이다. 우도면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약 150만 명이 우도를 방문했고, 올해도 지난해 수준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광 시장이 울상이라지만, 우도는 건재하다. 우도도 제주도처럼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다. 섬 남쪽 불룩한 언덕이 우도봉(132m)이다. 우도를 낀 작은 화산, 즉 옴름이다. 우도봉이 고개 든 쇠머리가 되고, 남쪽으로 길게 이어진 평지가 소 등줄기를 이룬다. 우도는 제주도 북쪽 섬 62개 중 가장



3 우도 북쪽 해안에서 발견한 '하트 윈담'. 윈담은 돌을 쌓아 만든 그물이다. 4 우도 도로는 전동차들이 정령하다시피 했다. 5 우도 북쪽 전흘동 해변에서 만난 해녀 고풍선씨. 성게를 한가득 잡아왔다. 6 고풍선 해녀의 집에서 맛본 성게비빔밥. 7 전복·소라·문어가 가득 들어간 모듬물회.

큰 섬이다. 면적이 5.9㎢이고 둘레는 17㎞다. 제주올레 1-1코스가 우도 해안을 일주 에두른다. 섬 속의 섬 우도에도 '섬 속의 섬'이 있다. 제주도 옆 우도 옆에 비양도가 딸렸다. 제주도 서쪽 한림 앞바다에만 비양도가 있는 게 아니다. 제주도 동쪽 우도 옆에도 비양도가 있다. 우도 비양도는 요즘 캠핑으로 인기가 높다. 우도는 번다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온종일 시끄러운 건 아니다. 우도 관광은 보통 반나절이면 끝난다. 중국인은 물론이고 한국인에게도 우도는 당일 여행지다. 여행 고수는 이 틈을 노린다. 느지막한 오후 우도에 들어갔다가 이틀날 다시 번잡해질 즈음 섬에서 나온다. 한낮의 우도 해변은 시장통 같지만, 해 질 녘에는 당신이 독차지할 수 있다. 식당에서도 대우가 달라진다. 점심 한 끼 장사로 먹고사는 우도 식당에서 저녁 손님은 귀빈 대접을 받는다. 그리고 우도의 밤. 한치 배와 갈치 배가 수평선을 밝힌 우도의 밤바다는 오롯이 당신 혼자만의 것이 된다.

게 있었다. 제주 말로 우미, 그러니까 우뭇가사리 수확 철이 되면 아이를 학교 대신 바다로 보냈었다. 우도 해녀는 제주 해녀 중에서도 억척스럽기로 유명하다. 1932년 1월 세화 오일장에서 발발한 해녀 항쟁도 우도 해녀가 주도했다. 1932년의 해녀 항쟁은 제주에서 일어났던 반일 시위 중 가장 격렬했다. 현재 우도 인구는 1618명이다(2023년). 우도면사무소에 따르면 우도에서 해녀는 300여 명에 이른다. 섬 주민의 약 20%가 해녀인 셈이다. 우도 북쪽 끄트머리 전흘동 바다가 우도에서도 이름난 바닷밭이다. 전흘동 바닷밭을 우도 해녀는 '물들이'라고 부른다. 여러 갈래에서 물이 들어와서다. 하여 소라부터 성게·전복·문어·꽃미역 같은 온갖 바닷것이 그득하단다. 여기에서 해녀 고풍선(53)씨를 만났다. 막 바다에서 나온 해녀의 '망사리'에 제주 말로 '구살(성게)'이 한가득 들어 있었다. "구살은 7월이 끝이예요. 구살도 소라처럼 미리 잡은 걸 여름에 팔아요. 어머니가 우도에서 유명한 해녀였어요. 올해 팔순인데, 건강이 안 좋아 은퇴하셨어요. 65년은 물질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 따라 어렸을 때부터 바다로 나갔어요. 저도 많으면 하루 100kg 씩 소라를 잡아옵니다." 그날 저녁 해녀 아내가 잡아온 바닷것으로 남편 흥영수(57)씨가 밥상을 차렸다. 소라회에 모듬물회, 성게비빔밥, 보말갈국수를 차례로 맛봤다. 우도 바다는 달고 고소했다. 우도=글·사진 손민호 기자

주민 20% 해녀... 알 굶은 소라 특히 유명
우도 바다는 제주도에서도 알아주는 '바닷밭'이다. 특히 소라가 많다. 우도 소라는 알도 굵다. 소라는 4월부터 9월까지 수확을 금지한다. 그러나 우도에서는 한여름에도 신선한 소라를 먹을 수 있다. 해녀가 봄에 잡은 소라를 바닷속에 쌰어 놓고 있어서다. 소라를 채취하는 일은 물론 해녀의 몫이다. 우도의 딸은 어려서부터 바다로 나갔다. 옛날에는 '우미 방학'이란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신제품 **세종 후코펫** 신제품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GMP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효과, 면역력증대, 세질개선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진원료,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Sejongbiotech, Inc. **세종바이오텍** 703-256-7671
www.sejongbiotech.us | www.sejongbiopet.us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케어 크레딧**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인비절라인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안버절라인 자정치과**

응급원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때론 분노, 때론 악마의 얼굴, 조각처럼 안 예쁜 게 내 매력”

내연남 연인과 얽힌 술집마담 역할
“학교 다닐 때 별명이 한예중 전도연
선배와 연기호흡, 내가 못할까 걱정”
차기작은 JTBC 사극 ‘옥씨부인전’

‘더 글로리’(넷플릭스)의 금수저 학교폭력 가해자 박연진, ‘마당이 있는 집’(ENA)에선 가정폭력 남편에 복수를 결심한 임신부 추상은. 지난해 독거어린 캐릭터로 연말 시상식을 휩쓴 배우 임지연(34)이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얼굴’을 빚어냈다.

7일 개봉한 영화 ‘리볼버’(감독 오승욱)는 모든 비리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힌 수영(전도연)이 출소 후 미스터리한 남자 앤디(지창욱)가 약속한 돈 7억원과 자신의 아파트를 되찾으려 나선 여정을 쫓는다. 임지연이 연기한 정운선은 출소한 수영을 유일하게 마중 나온 술집 마담. 운선은 거액의 빚을 핑계로 수영의 적들에게 수영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지만, 그 사실을 수영 본인에게 낱알이 고백한다.

알고 보면 운선은, 수영의 죽은 연인이자 경찰상사였던 임 과장(이정재)과 한때 내연 관계로도 밝혀진다. 그런데도 연적 사이인 수영을 “언니”라며 따르고, 수영의 뒤통에 드나 묻자 “에브리핑(everything)”하며 해별쪽 웃는다. 너무 투명해서 오히려 종잡기 어려운 캐릭터를 임지연이 날 것 같은 연기로 설득해낸다.

각본을 겸한 오승욱 감독이 “얼굴을 특화시켜 찍은, 얼굴들의 버라이어티쇼”라 표현한 ‘리볼버’에서 임지연은, 전도연의 절제미와 정반대인 총천연색 빛깔로 스크린을 물들인다. 통화 상대에 따라 박쥐처럼 달라지는 목소리 연기도 묘미다.

“연기할 때 내 얼굴이 어떻게 상상치 안 되는 역할에 끌린다”는 임지연을 지난 1일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만났다.

그에게 ‘리볼버’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연기과 09학번) 재학 시절 ‘한예중 전도연’을 자처할 만



영화 ‘리볼버’를 연출한 오승욱 감독은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을 연기한 임지연을 눈여겨보고 캐스팅했다.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큼 “동경해온 선배와 인물 대 인물로 한 작품에서 호흡할” 기회가기도 했다.

“오승욱 감독, 전도연 선배의 영화 ‘무뢰한’(2015) 팬”이라 밝힌 그는 “많이 배우고 질문할 작정으로 참여했는데 감독님이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하라더라”고 돌이켰다. “연진이는 모두

계산된 연기”라고 할 만큼 인물 분석에 철저했던 그가 ‘리볼버’를 만나 “처음으로 현장의 공기, 하수영이 주는 에너지에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며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는 ‘리볼버’를 두고 “처음 ‘알’을 깨고 나온 작품”이라 표현했다. “연기 잘하는 선배들 사이

에서 나 혼자만 못하면 어찌지, 걱정과 불안이 컸는데 처음으로 ‘한번 놀아볼까’ 용기를 냈다”면서 “생각보다 내가 감각적이고, 동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배우란 걸 알았다”고 말했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항상 커서 좌절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운선은 쭉뚱도 없으면서 자존감이 높아요. 지연아, 너 충분히 매력적인 배우니까 나를 조금만 더 사랑하자. 이런 행복감에 눈뜬 것도 운선의 영향이에요.”

전도연은 영화사와 사전 인터뷰에서 “운선이 처음 수영을 마중나왔을 때 팔랑거리는 나비처럼 ‘언니!’ 하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었다”고 임지연을 첫 등장신부터 칭찬했다.

임지연 역시 “촬영 직전 5분간 말없이 제 눈을 응시하던 전도연 선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이 에너지를 느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전도연 선배가 원톱이고 저는 귀여운 서브다. 여성 서사, 여성 간의 케미스트리를 관객들도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화 ‘재난영화’(2011)로 데뷔한 임지연은 MBC 주말드라마 ‘불어라 미풍아’(2016)의 순진한 탈북 여성 역할로 첫 주연을 맡았다. 올해 ‘파묘’로 천만관객을 거둔 배우 이도현과 ‘더 글로리’ 이후 공개 연애 중인 그는 군 복무 중인 이도현에 대해 “서로 응원 많이 하는 고마운 존재”라고 조심스레 밝혔다.

스스로의 매력을 묻자 “조각한 듯이 예쁘진 않은 게 매력인 것 같다”며 “대신 다양한 색깔의 얼굴이 있다. 바보 같은 면, 남자 같은 모습도 있다. 목소리 톤도 다양한 게 장점”이라 했다.

차기작은 조선시대 배경의 JTBC 드라마 ‘옥씨부인전’으로, 가짜 신분으로 정체를 감춘 범법 전문가 ‘옥태영’을 연기한다. “요즘 사극을 촬영하며 예전에 출연한 사극을 다시 보고 있다. (미숙했던 모습) 미칠 만큼 괴롭지만 참고 본다”며 “현장에서 상대와 더 많이 호흡하며, 용기 있게 내 자신을 더 믿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원정 기자

콩코드 광장서 댄스 배틀... 흥텐 “춤의 매력 느껴보세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바라다보이는 콩코드 광장에서 열정의 춤사위가 펼쳐진다.

파리올림픽의 ‘신생 종목’ 브레이킹이 첫선을 보인다. 9일과 10일 이틀간 콩코드 광장에서 춤 대결을 벌인다. 9일에는 비결(여자부) 조별 리그를 시작으로 금메달 배틀이 진행되고, 10일에는 남자부인 비보이 경기가 열린다.

브레이킹은 1970년대 초반 미국 뉴욕에서 힙합 댄스의 한 장르로 시작됐

다. 과거에는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의 거리 문화로 여겨졌지만, 점차 고난도 기술과 예술성이 결합한 스포츠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전세계 젊은 팬의 지지를 받는 브레이킹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

이번 대회에는 정상급 비보이 16명과 비결 16명이 출전한다. 한국에선 ‘흥텐’ 김홍열(40)이 유일하게 태극마크를 달고 무대를 누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올림픽 선수촌에서 막

바지 훈련을 하고 있는 김홍열은 “선수촌에서 모의 훈련을 진행하며 몸을 만드는데 중이야. 경기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면서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느낌이 오면 곧장 연습장으로 달려가는 스타일이다. 여기에선 마음껏 훈련할 수 있어서 튼튼하게 연습을 하고 있다”고 했다.

14세 때 처음 춤을 접한 김홍열은 한국 브레이킹의 살아있는 역사다. 세계 최대의 1대1 비보이 대회인 레

드볼 BC 원 월드 파이널에서 3차례(2006·2013·2023년)나 우승했다.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차례로 정상 밟으면서 브레이킹의 새 역사를 썼다. 1984년생으로 올해 마흔 살이지만, 여전히 20대 선수들과 경쟁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브레이킹은 2028 LA 올림픽에선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김홍열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다.

김홍열은 “내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

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많은 대회를 경험한 비보이로서 새롭게 도전해볼 수 있는 무대가 열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뛰게 했다. 역사상 최초의 브레이킹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에 욕심이 난다”고 했다. 그는 또 “브레이킹은 스포츠와 예술을 모두 합친 종목이다. 어려운 기술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고난도의 기술과 아름다운 춤선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유심히 살펴본다면 브레이킹의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고봉준 기자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Hair **Z**one

20주년 기념 스페셜!!

20주년 특가 이벤트 !!

- Mens Hair Cut
- Seniors (Up to 65)
- Kids (Under 15)
- Military

\$19,99

Jacky, Ellen 제외



Body Massage \$49,99 (애난데일점)

60-Minute Body Massage

- Relaxation Full Body
- Swedish with Free Essential Oil
- Therapeutic Deep Tissue



Ellen

Business Hours

MON - SAT 10AM - 6PM
WED, SUN CLOSED

Burke

202-580-9398

8985 Hersand Dr
Burke, VA 22015



Jacky

Business Hours

MON - SAT 9AM - 7PM
SUN 10PM - 3PM

Annandale

703-750-1020

6920 M Bradlick Shopping Center
Annandale, VA 22003

뉴욕·한국·일본에서 30년 경력 스타일 리스트

Hair **Z**one

바버 or 미용사 / 바디 마사지사
풀 타임 / 파트 타임 구함

Hair Zone 예약 App Download



Apple



Android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avid: How do you like living in the big city?
데이비드: 대도시에서 사는 게 어때?

Maria: I love it. It's always exciting there's so much to do.

마리아: 좋아. 할 게 많으니까 항상 신나지.

David: Doesn't it wear you down?

데이비드: 피곤하지 않아?

Maria: No. There's always something to learn and that gives me energy.

마리아: 아니. 항상 배울 게 있어서 기운이나.

David: But the city is far more dangerous than the country.

데이비드: 하지만 도시는 시골보다 살기가 위험하지 않나.

Maria: That's true. People in the city don't open up like they do in the country.

마리아: 그거야 그렇지. 도시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처럼 맘을 열진 않아.

David: I'm sure the country is a lot more relaxed.

데이비드: 분명 시골에서 사는 게 훨씬 느긋할 거야.

Maria: Yes the city is busier than the country. However the country is much slower than the city.

마리아: 그래 도시는 시골보다야 바쁘지. 하지만 시골은 도시보다 속도가 너무 느려.

기억할만한 표현

▶ open up: 맘을 열다 속을 내보다

"When he opens up to her she loves him more." (그가 마음을 열 때 그녀는 그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 put (something) above (something): ~를 더 우선

wear (somebody) down:

~를 기진하게 만들다, 피곤하게 하다

으로 여기다

"She puts studying English above going to parties." (그녀는 파티에 가는 것보다 영어 공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draw (something) from (someone or something): ~를 ~에서 얻다

"I draw a lot of comfort from her kind words." (저는 그녀의 친절한 얘기에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가로열쇠

(1)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을 훈계하고 풀어 줌 (3)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 보냄 (4)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7) 쌀 찌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 도정공장. 방앗간 (9)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 (10) 길게 땅은 머리 끝에 드리는 장식용 형겅이나 끈. 설날 아침에 색동저고리를 차려 입히고 빨간 ~를 매 주었다 (12) 아이를 낳음. 분만. 산아 (13) 집안일에 관하여 아내가 자신의 뜻을 내 세움. ~이 강한 집안. □주□ (15) 솥통이 막히거나 산소가 부족하여 숨을 쉴 수 없게 됨 (16) 나라에서 뽑음. ~ 변호사 (19) 지금까지 거쳐 온 학업, 직업, 경험 등의 내력을 적은 문서 (21) 무엇을 맞히려 고 돌맹이를 멀리 날려서 던지는 짓. 개구쟁이 아이들이 다리를 절뚝이며 어슬렁거리는 주인 없는 개를 향해 ~를 던졌다 (22) 정치계와 경제계가 이익을 위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음 (24) 하고자 하는 말이나 편지의 내용 (25)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 □골□□

세로 열쇠

(1)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 (2) 몸 안에 들어온 항원에 대하여 저항력을 가지는 일 (3) 어떤 일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따져 보는 것 (5)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주물러서 신경을 자극하여 피의 순환을 순조롭게 하는 민간 요법 (6)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소리나 기색 (8) 술을 덮는 쇠뚜껑. 자라 보고 놀란 가슴 ~ 보고 놀란다 (11) 여객기 안에서 승객과 승무원에게 제공되는 음식 (12) 술을 마신 후 속을 풀고자 먹는 국 (14)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 (15) 차례나 순서 따위가 잘 잡혀 한결같이 바르고 가지런함 (17) 선사 시대에, 자연석이나 약간 다듬은 돌기둥을 땅 위에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세운 거석(巨石) 기념물. 기념비, 묘비, 경계의 표지 또는 종교적 의미에서 세운 것으로 보이거나 확실하지는 않다 (18) 자나깨나 잊지 못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 그리워하다 (20) 어머니의 젖 (23) 실제와 다르게 잘못된 느낌

스도쿠

7	1	4	9					
9								
5				3	2			
1			2			6		
		8		9		3		
		3			8			5
			6	8				3
								8
					9	7	6	1



자료제공 = 울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9	7	6	4	8	5	2	8
8	4	6	1	2	5	7	3	9
4	8	9	5	2	1	6	7	3
3	2	5	7	6	8	4	9	1
5	6	2	8	7	1	3	4	9
2	5	4	9	6	8	7	1	3
1	7	9	2	5	3	6	8	4
6	9	4	7	8	1	3	2	5
8	3	2	1	4	9	6	5	7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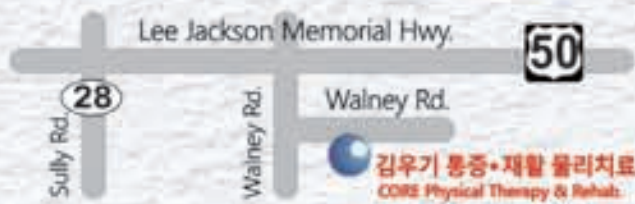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미동부 위싱턴 지역
토박이 한인마켓!
롯데플라자마켓

LOTTE PLAZA market

VA & MD Weekly Sale: AUG. 9 FRI - AUG. 15 THU, 2024

FRI	SAT	SUN	MON	TUE	WED	THU
9	10	11	12	13	14	15

*실바스프링과 한민 매장은 본 세일 광고에서 제외됩니다.
www.lotteplaza.com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주간 세일 및 이벤트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농장직송 3 LB 金香라카참외 Korean Melon 24.99 17.99 BOX	3 LB 거봉포도 Kyoho Grape 14.99 7.99 PK	FRI/SAT/SUN 노란 복숭아 Yellow Peach 1.99 0.99 LB	3 LB 샤인씨없는청포도 Shine Seedless Green Grape 9.99 6.99 PK	14 PK 미니 오이 Toplevel Mini Cucumber 1.99 0.99 PK	LIMIT 6EA 5 LB 노란 옥수수 Yellow Corn 3 EA for 0.99	5 LB 칸마늘 Peeled Garlic 19.99 14.99 EA	
4 LB 엔비 사과 Envy Apple 7.99 3.99 BAG	GIFT BOX 4 LB 켄트망고(7-8과) Kent Mango (7-8's) 14.99 6.99 BOX	3 LB 백천도 White Nectarine 3.99 1.49 LB	GIFT BOX 300g 썬골드골든키위 Sungold Golden Kiwi 29.99 22.99 BOX	300g 한국양배추 Korean Cabbage 0.99 0.59 LB	150g 컬리플라워(대) Cauliflower (Large) 3.99 2.99 EA	300g 유기농 한국산 새송이버섯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4.99 2.99 PK	150g 해산물 버섯 Seafood Mushrooms 1.99 0.99 EA
3 LB 씨없는 수박 Seedless Watermelon 7.99 4.99 EA	3 LB 하미멜론(대) Hami Melon (Large) 1.99 0.99 LB	3 LB 썬레이 만다린 Sunnays Mandarin 5.99 3.99 BAG	FRI/SAT/SUN 1 LB 타이구아바 Thai Guava 1.99 1.29 LB	FRI/SAT/SUN 10 LB 한국 고추마 Korean Sweet Potato 24.99 16.99 BOX	5 LB 그린자이언트 아이다호감자 Green Giant Idaho Potato 2.99 1.99 BAG	10 LB 한국 고추 Korean Pepper 3.99 1.99 LB	10 LB 빨간 양파 Red Onion 14.99 9.99 BAG

DONG WON
등원 브랜드워크
DONG WON BRAND BEST PRODUCT SPECIAL

프리미엄 참기름 Premium Tur Extract Sesam Oil 9.99 6.99	한국 건강함 흑미밥 Cooked Black Rice 7.99 4.99
기획 상품 살코기 참치 6팩 + 고추참치 2팩 6팩은 빈항동기 증정 14.99 9.99 BX3.20Z	고추참치/살코기 참치(4팩) Tuna Can Small (Hot / Original / Low) 13.99 8.99 4X5.30Z
떡볶이와 산책버섯 떡볶이(고추/고추마/로제) Topokki Cup (Cheese / Hot & Spicy / Pink) 2 EA for 5.00	산개떡볶이 Hot & Spicy / Sesame Oil (Seasoned Cold) 10.99 11.99

말복 맞이 건강 세일
화끈하게 복날을 책임진 닭

프리미엄 이천쌀 Premium Rice Chun 12.99 12.99 15 LB	우나기(양념장) Unagi Kabayaki Grilled Eel 7.99 5.99 7oz	냉동 통낙지 Small Octopus 12.99 8.99 1.3 LB	정미바다 통굴 Oyster (1.0 P) 5.99 3.99 276g
속초식 명태회 (물냉면/서빙양념) Pollock Cold Noodles (Chilled Broth / Spicy Sauce) 14.99 7.99 쌍용통	일본 구수 (차스바/소바/소면/우동/추가스바) Japanese Noodle (Chaoshi / Soba / Somen / Udon / Chuka Soba) 3.99 3.49 3.0oz	종프우지루스바 Pork Zaru Soba 4.99 4.99 17oz	

POULTRY & MEAT LOW PRICE AND BEST MEAT PROMISED IN THE 365 DAYS

Weekly HOT Special

말복 스페셜 내추럴 냉동영계(두마리) Frozen Natural Cornish Hen (Twin Pack) 3.99 2.99 LB	말복 스페셜 소꼬리 Beef Cut Oxtails 13.99 12.99 LB
앵거스 앞치마살 Angus Beef Flank Steak Chunk 12.99 10.99 LB	돼지목살 수육 Pork CT Butt Chunk 6.49 5.49 LB
양념 닭사태살 (테리야카) Marinated Chicken Boneless Thigh (Teriyaki) 4.99 3.99 LB	말복 스페셜 통닭 Whole Chicken 2.99 1.99 LB
냉동 앵거스 프라이드 대패부채살 Frozen Prime Beef Chuck Top Blade Paper-Thin 17.99 12.99 LB	말복 스페셜 무항생제 목초우 뉴욕스테이크 Grass Fed Beef Strip Loin NY Steak 13.99 12.99 PK

FRESH SEAFOOD YOU WILL FEEL THE SCENT OF THE SEA IN THE 365 DAYS

Weekly HOT Special

머리없는 새우 Shrimp (Head Off, 26-30) 7.99 5.99 LB	락데일 새우 (100-200) Cooked Shrimp (100-200) 7.99 6.99 LB
냉동 홍어 Frozen Skate Skinless (1-2) 4.99 3.99 LB	곰병어 Golden Pompano 4.99 3.99 LB
갯오징어 Cuttle Fish 6.99 5.99 LB	생대구 Whiting 4.99 2.99 LB
FRI/SAT/SUN 냉연어 Whole Salmon (4-6) 6.99 4.99 LB	FRI/SAT/SUN 스팟 Spot 4.99 3.99 LB

대한민국 아자개쌀 A Ja Gae Rice (Short Grain Rice) 23.99 16.99 15 LB	프리미엄쌀 (중/중대)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38.99 27.99 40 LB	신라면/너구리/파파게티 멀티 Ramen Multi (Gin / Henjel / Chongjel) 6.99 4.49 4x4.2oz	새우탕 소편 밥 Spicy Shrimp Cup Rice 12.99 8.99 3x3.2oz	해물파스타 Seafood Pasta 15.99 9.99 4L	원두떡볶이 Twin Wrap Dumpling (Pink & Vegetable / Pork & Kimchi) 11.99 7.99 19.8oz
이태리 쌀만두 Italian Style Dumplings 11.99 7.99 21.2oz	피만두 (삼파/김치/양파고추) Steamed Dumpling (Jeonche / Kimchi / Pepper) 5.99 5.00 168g	유기농 우유 (오리지널/2%지방/1%지방/무지방) Organic Milk (Whole / 2% Reduced Fat / 1% Reduced Fat / Fat Free) 4.99 4.99 54oz	바나나 Banana 7.99 7.99 3.3oz	참깨떡볶이 Chickpea Pasta 4.99 4.99 4.2oz	바나나 Banana 4.99 4.99 4.2oz
오싹일 골릭(생선뼈) Rice Cake (Shrimp Bone) 2.99 2.99 12.5oz	콩떡볶이 (쌀/물/떡볶이) Noodle (Rice / Water / Noodle) 4.49 4.49 15.7oz	드림몽 12팩 (카라/크리) Dream Monch Cake (Cacao / Cream) 14.99 4.99 3x4oz	왕새우칩/오징어칩/양파칩/자갈치/바나나칩/꿀꽂배기 Family Pack Chips (Shrimp / Octopus / Onion / Squid / Banana / Honey Tweak) 9.99 6.99 20x1.7oz	BEER WINE Bokbunja (Beer Wine) 15.99 15.99 750ml	미취산 Machoson (Wine) 11.99 11.99 750ml

HOUSEWARE MAKE YOUR LIFE EASIER & STYLISH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AUG. 8 - AUG. 15, 2024
실속가득 알뜰세일
Lotte Plaza Market Summer Big Saving Special

여름용 치얼이불링 사이즈 Summer Comfort Pad (King Size) 200X230CM 39.99 24.99 EA	크림장갑 Disposable Gloves 200 3.99 PK
4구 계란 4 Egg Pan 34.99 19.99 EA	30공용/30후라이팬 30 Wokpan / 30 Frypan 29.99 17.99 EA
델리인덕션 전열기구 세트 Della Sauce Pot Set (One Handle / Two Handles) 34.99 24.99 EA	델리인덕션 전열기구 세트 Della Low Pot Set 44.99 24.99 EA
3D 3D Wokpan 49.99 24.99 EA	3D 3D Wokpan 49.99 19.99 EA

8월
구
인
광
고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 Seafood Carry Out
- Pickup Store(bowie) \$30,000
-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202.553.8551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파트타임
- * 영어/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애틀랜타 기타 지역

구인 구인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석제공(일에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죽/죽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 숙식제공
알라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딜리버리/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소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Hello K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급리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게재
All about US Life!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차콜온돌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 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형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희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 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러치라 살매
최종살매
Up to 40%
헛살매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러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러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FBS solutions
5분만에
100마일
충전가능
= 300kw

**한인최초 미국 굴지의
EV충전소 제조 회사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소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 할수있습니다**

문의: Jay Park Jaepark2000@yahoo.com
213-605-1122, 714-822-7150
Sales Agent 모집중 (선착순 인원제한)
개인땅이나 건물주 연락 바랍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새 상가나 새 아파트에는
EV 충전소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EV 충전소 설치의 장점

1. 내 땅에서 전기 충전소 설치하면 24시간 수입 창출
2. 트래픽이 많아지고 기다리는 동안 수입 창출 3
3.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높은 Grant 를 받을 확률이 좋다
4. FBS 를 통해 설치 하면 공사비가 타 회사 대비 70% 절약 할수있다

12541 E. Carson St., Hawaiian Gardens, CA 90716

IRS 세금 문제 전문
State 세금 문제 해결
10년 이상의 세금문제 전문 경력

CLIENTS	CASES	TAX OWED	SETTLED
B. KIM	IRS APPEALS	\$46,292	\$2,701
B. BROKERING	IRS	\$37,524	\$1,000
Y. BUS & TRUCKING	IRS	\$1,088,081	\$2,000
K. FASHION	IRS	\$3,864,169	\$1,850
DOUGLAS B.	IRS	\$25,976	\$1,900
J. PAINTING	IRS	\$184,480	\$2,000
A. CLEANERS	IRS	\$133,044	\$27,000

CLIENTS	CASES	TAX OWED	SETTLED
B. CONSTRUCTION	IRS 1099-G	\$674,699	\$0
Y.I. KIM	IRS CAP GAIN	\$21,952	\$1,500
D.K. SUSHI	SALES TAX AUDIT	\$ -	Finalized
DAVID Y.	SALES TAX	\$22,949	\$2,000
MARY L.	FTB	\$40,072	\$3,000
S. PAINTING	CORPORATION SUSPENSION	Corporation Suspended	Revived
J. JONES	GARNISHMENT	\$55,827	Released
L. CLEANERS	IRS CVL PNL	\$133,043	\$1,118/mo
K. RIM	IRS / STATE	\$171,926	\$2,500
O. SUSHI	ABC LICENSE SUSPENSION	License Suspension	Reinstated
D. DEAN	IRS 1040	\$25,976	\$2,000
Y.S. SONG	STATE LIEN	Lien	Released
S. BBQ	SALES TAX	\$18,413	\$500

**여권/Passport
Income Tax
State Tax
Payroll Tax**

Top Google Rating ★★★★★

562.943.1456 미 전역 가능 TAX HELP TEAM 1440 N. Harbor Blvd., Suite 706, Fullerton, CA 92835 **KC Choi 공인세무사**

지구촌마켓 GLOBAL FOOD

- MANASSAS, VA**
703.369.9977
10320 Festival Lane, Manassas, VA 20109
- WOODBIDGE, VA**
703.897.6100
13813 Foulger Square, Woodbridge, VA 22192
- ALEXANDRIA, VA**
703.933.6033
1476 North Beauregard St, Alexandria, VA 22311
- SILVER SPRING, MD**
301.847.9884
13814 Outlet Dr, Silver Spring, MD 20904
- OXON HILL, MD**
301.485.0651
5470 St Barnabas Rd, Oxon Hill, MD 20745
- BALTIMORE, MD**
410.645.8627
6600-6658 Security Blvd, Baltimore, MD 21207

오른시간: 월~일요일 (9am~9pm)
www.iglobalfood.com

Weekly Sale
Aug 9 Fri ~ Aug 15 Thu 2024
본세일은 Woodbridge, Silver spring 매장에만 적용됩니다

참외박스 #황금씨라기
Korean Yellow Melon
\$16.99 (BOX)

복숭아 # X-lg Size
Yellow Peach
\$1.49 (LB)

만다린 # X-lg Size
Mandarin
\$1.49 (LB)

실란초, 고수 # Sale
Cilantro
2for 99¢

씨없는오이 # Sale
European Cucumber
99¢ (EA)

고구마 # Medium
Korean Yam
\$1.29 (LB)

SEAFOOD

아구
MONK FISH
\$3.99 (LB)

냉동 오징어
FROZEN SQUID
\$2.99 (LB)

통연어
WHOLE SALMON
\$5.99 (LB)

MEAT

꾸리살 Beef Chuck Tender \$6.99 (LB)	소사태 Beef Shank (Bone-in) \$5.99 (LB)	수육삼겹살 Pork Bellies \$5.49 (LB)	돼지갈비 Pork Spare Rib \$2.99 (LB)	통닭 Whole Chicken \$1.99 (LB)	닭다리 Chicken Drum Stick \$0.99 (LB)
---	--	--	---	--	--

HARDWARE

KAIZEN FRY WOK
26 CM 공중팬
\$11.99 (EACH)

QUEEN SENSE SQUARE GRILL PAN
\$15.99 (EACH)

WOODBIDGE ONLY 아래 세일상품은 조기에 품절되거나 예고 없이 변경 혹은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18팩 OTTOGI JIN RAMEN SPICY/120GX18 16.99 (19.99)	수라상 자색 고구마 당면 PURPLE SWEET POTATO STARCH NOODLE 2.99 (3.99) 12 OZ	KOSBEE 귀리 ORGANIC WHOLE OATS 8.49 (9.99) 3LB	요리사 현미찰쌀 BROWN SWEET RICE 4.79 (5.99) 2LB	백설 튀김가루 BEKSUL FRYING MIX FOR COOKING 2.99 (3.99) 1KG	ORGALAND 유기농 친환경 재래김 12봉 ORGANIC SEASONED SEA SNACK 5.99 (7.99) 5G*12	WANG 유기농 돌각미역 WANG DRIED SEAWEED(GOKEUMDO) 10.99 (12.99) 12,34OZ	SUKINA 메밀국수 SUKINA BUCKWHEAT NOODLE 5.49 (6.99) 3LB		
샘표 맑은 조식간장 NATURALLY BREWED SOY SAUCE 3.29 (4.49) 500 ML	SHIRAKIKU 메밀국수 소스 SHIRAKIKU SOBA SOUP BASE 3.29 (4.49) 360 ML	오뚜기 양조식초 OTTOGI VINEGAR 4.29 (5.49) 900ML	WANG 삼겹살 쌈장 WANG MILD SOY BEAN PASTE 4.29 (5.49) 450G	샘표 백일된장 AUTHENTIC SOYBEAN PASTE 4.49 (5.49) 450 G	해찬들 순한맛 고추장 HOT PEPPER PASTE MILD 4.99 (6.49) 500 G	S&B골든카레 아주매운맛 S&B GOLDEN CURRY XTRA HO 3.49 (5.49) 7,8OZ	동원 런천미트 DONGWON LUNCHEON MEAT 2.99 (4.49) 12OZ	J BASKET 코코넛 밀크 JFC COCONUT MILK 1.49 (2.49) 13,5OZ	롯데 섹섹 오렌지 LOTTE SAC SAC ORANGE 12PK 15.99 (18.99) 8,05OZ
WANG 황태채 WANG POLLACK SHREDDED 7.99 (9.49) 5 OZ	WANG 시골단무지 WANG PICKLED RADISH 5.99 (7.99) 35,2OZ	WANG 현미칼국수 WANG BROWN RICE NOODLE 4.99 (6.49) 2,2 LB	샘표 바지락칼국수 SEAFOOD NOODLE SOUP 4.49 (5.49) 15,38 OZ	만두촌 돼지고기만두 WANG PORK DUMPLING 5.99 (7.99) 26 OZ	수라상 가래떡 떡볶이 RICE CAKE W/SPICY SAUCE 4.99 (5.99) 470 G	WANG 냉동 산낙지 WANG SMALL OCTOPUS LARGE 11.99 (13.99) 24OZ	WANG 백합 조개탕 WANG FROZEN BOILED CLAM 3.49 (4.99) 12 OZ	AROY D 코코넛 크림 AROY D COCONUT CREAM 2.29 (2.99) 19 OZ	LEE KUM KEE 굴소스 LKK PREMIUM OYSTER SAUCE 4.99 (5.99) 18 OZ

매니저 추천 핫 세일 품목 HOT SALE

남양프렌치 카페 카메믹스
NAMYANG FRENCH CAFE MIX / 10.9*100
10.99 (16.99)

KADOYA 참기름
KADOYA PURE SESAME OIL
4.29 (6.99) 11OZ

SILVER SPRING ONLY 아래 세일상품은 조기에 품절되거나 예고 없이 변경 혹은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졸라 콘 오일 2.5GAL MAZOLA PURE CORN OIL 32.99 (43.99) 2,5GAL	하림 삼계탕 HARIM SAMGETANG 7.99 (12.99) 28,22OZ	하나 냉채용 해파리 HANA SALTED JELLYFISH 9.99 (12.99) 2LB	샘표 삼마을 6+2 저염 파래김 도시락 재래김 도시락 SEMPIO GRILLED LAVER 3.49 (4.99) 6+2PK	왕생 줄기미역 왕생 미역 100Z 왕생 쌈용 다시마 WANG SEAWEED STEM WANG SEAWEED ALGUES WANG SSAM DASIMA KELP 2/3 (1.99)	샘표 조식간장 SEMPIO NATURALLY BREWED SOY SAUCE 4.99 (7.99) 930ML	INOTEA 버블티 허니듀,브라운 슈가 타로,그린티 라떼 바나나 INOTEA BUBBLE TEA 2.99 (3.99) 490ML	청정원 런천미트 CJW LUNCHEON MEAT PORK 2.99 (4.49) 12OZ	삼양 왕짬구 SAMYANG WANG CHANGGU 3.99 (5.99) 275G	삼양 해불닭 볶음면 멀티팩 SAMYANG HOT CHICKEN RAMEN 2X SPICY 3.99 (6.49) 5PK
---	---	---	--	---	---	---	--	--	---